

AI가 반도체를, 반도체가 AI를… ‘혁신 선순환’ 가속

AI가 설계·공정 효율 높이고 고성능 반도체가 AI 성능 견인
삼성·SK, ‘AI 팩토리’ 본격 가동
정부, 반도체·AI 투트랙 육성

인공지능(AI)이 반도체 공정을 최적화하고, 고성능 반도체가 다시 AI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반도체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이 ‘AI 반도체 혁신’으로 옮겨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사들도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AI는 올해부터 반도체 개발 과정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칩 설계부터 공정 시뮬레이션, 회로 검증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 연산을 활용해 처리 속도가 수십에서 수백배 향상됐으며, 엔비디아의 쿠다(CUDA)-X·Physics NeMo를 위시한 가속 라이브러리·AI 물리모델 등이 도입돼 최적화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성능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의 발전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속도와 AI 서버의 처리 및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반도체에서 AI로의 환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측이 최근 “AI가 반도체 설계와 제조 효율을 높이고, 성능이 향상된 반도체가 다시 AI 발전을 가속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한 이유다.

AI 기반 가상 설계(디지털 트윈)와 물리 시뮬레이션 기술도 시험 생산·조정 비용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확산 중이다. 실제 장비없이 가상 공간에서 공정을 재현해 오류를 예측할 수 있어, 설비 구축 전 단계에서부터 공정 조건을 미리 최적화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다시 모델 학습에 활용됨으로써 설계 정확도를 높이는 선순환 역시 형성한다.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5만 개 이상의 GPU를 탑재한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거대언어모델(LLM) 학습과 3D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제조 AI 클라우드로, 2027년 말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사인 SK하이닉스도 디지털 트윈 및 AI 물리모델을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해 냉동기·공조 등 유틸리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했다. 또 공정 시뮬레이션 기반 AI 모델링으로 분석 속도를 최대 300배 이상 높였다.

삼성전자 역시 AI 기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정과 AI 서버용 메모리를 연계한 차세대 HBM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AI 인프라와 반도체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8년까지 GPU 1만5000대 이상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공정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구도는 제조 현장과 연구개발 단계 전반에 AI를 통합하는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업과 협력해 2030년까지 총 26만대의 GPU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AI 중심 투자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AI-반도체 선순환 가속’이 K-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



국힘 불참 속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10월 물가 상승 15개월來 최고 김장철 물가안정에 500억 투입

정부 김장 할인행사 역대최고 지원
수산물 유통경로 간소화 등도 추진

지난 10월 물가가 크게 뛰자 정부가 대규모의 농산물 할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장 담그기를 앞둔 시점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조치다. 이달 김장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년3개월 만에 최고인 2.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 등이 상승 폭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2%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10월에 처음 2%대 중반으로 뛰었다. 연말로 접어드는 4분기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 직전 3분기만 해도 7월 2.1%, 8월 1.7%, 9월 2.1% 등 안정된 추이를 보여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 4만7000톤(t)과 고추·마늘·양파·소금 등 5000t을 집중 방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장철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농축산물 300억·수산물 200억)을 투입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12월 초까지 5주간 진행되는 김장철 할인행사에 총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정부가 20%, 업체가 20% 할인한다. 소비자 1인당 주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은 대형마트에서 이달 12~30일 기간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에서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품목별 가격 및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에도 나선다. 필요시엔 추가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2030년까지 유통비용률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유통경로를 간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수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품목을 기존 60종에서 134종으로 100% 이상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지주 순익 10% 증가… 은행·증권이 효자

총자산 3868조·순이익 15조
보험·여전사 부진 속 은행 선전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증권부문 실적증가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이 4일 내놓은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연결 기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회사 10곳(KB·신한·하나·우리·NH·B·NK·iM·JB·한투·메리츠)의 연결 당기 순이익은 15조44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조556억원) 대비 1조3872억

원(9.9%) 늘었다.

이익 증감폭은 은행이 전년 동기보다 1조6898억원(19.3%) 늘었고, 금융투자업이 4390억원(17.9%) 늘었다. 보험은 932억원(3.8%) 감소했고, 여전사 등에서는 3343억원(20%) 줄었다.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p) 늘어난 59%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사 17.9%(1.1%p), 보험 13.4%(-1.9%p),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포함)가 7.5%(-2.8%p) 순이었다.

같은 기간 10개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8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3754조8000억원 대비 112조8000억원(3.0%)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7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사가 11.5%, 보험이 6.7%, 여전사가 6.1%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은행지주의 자본적정성지표는 총자본이 15.87%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0.2%p 개선됐고, 기본자본이 14.88%로 0.33%p 올랐다. 보통주자본비율도 13.21%로 0.37%p 상승했다.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4.3%로 지난해 말의 122.7%보다 18.0%p 하락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시달리면… 보호관 지원하고 감사원 감사도 면책
▲헤그세스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군 당국으로선 최선 다해 지원”

/사진 뉴시스

▲尹 취임 후 국유재산 매각 여유자금 70% 증가… “적정 기준 마련해야”
▲국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공동성명 추후 발표
▲박지원 “北 김영남 조문 사절 보내야…내가 평양 방문하겠다”

금융권, ‘장애인 고용률’ 후퇴… 일부 공공기관도 ‘외면’

7대 금융지주 고용률 법정기준 절반
공공기관 절반 미달 장애인 고용 후퇴
정부 의무확대 따라 분담금 부담 가중
ESG 리스크 커져 포용경영 과제 부상

국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개 금융지주는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금융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4일 국내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BNK·iM·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금융그룹의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다. 직전년도 평균인 1.0%에서 0.1%포인트(p) 올랐지만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7개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BNK금융이 1.18%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찾은 시민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iM금융이 1.11%, 하나금융과 JB금융이 각각 1.06%를 기록했으며, 우리금융은 0.9%, 신한은행은 0.8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해 1%를 밑돌았다. 고용률이 가장 준수한 KB금융의 고용률도 법정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민간 금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 소속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8개 금융공공기관(금융위 산하 7개 기관 및 금융감독원) 가운데 4곳(금융감독원·기업은행·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을 고용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전체 임직원 가운데 1.6%만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도 2%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3.55%, 서민원은 3.23%를 장

래인으로 고용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미달 기관 가운데 기업은행을 제외한 3곳은 올해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체 임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 미달 수준에 따라 1인당 126만~210만원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내 7개 금융지주와 8개 금융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매년 약 220억원에 육박한다. 각 금융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막대한 벌금을 내고 있는 것.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타 업권과 비교해 크게 미진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3876곳에 재직 중인 433만200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13만3100건(중증 장애인은 2배로 산정)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07%다. 같은해 금융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인 1.0%와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8%에서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 금융사가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리스크 요인으로도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난 2023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임직원의 다양성 및 기회의 형평성 또한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가치의 저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마다 취약계층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임직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 장려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간접 고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철강산업, 공급과잉 돌파구 찾는다 AI공정·수소환원제철 전환 가속

과잉설비 감축해 체질개선 속도
수소환원·AI공정으로 탄소 절감
특수강·수출지원 확대 경쟁력 ↑

정부가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는 한편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인공지능(AI) 전환 및 수요창출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먼저 경쟁력 약화 품목 중 기업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등 책임 경영을 전제로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계획이 미진한 경우엔 수입재 침투율에 따라 자율적 조정 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

수입재 침투율이 낮으면 자율적 조정계획에 우선 착수하고 침투율이 높으면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모에 대한 순차 조정에 나선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기업의 선제투자 촉진, 특수탄소강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수출장벽 대응 방안으로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정부는 미 관세 피해기업에 긴급 융자자금을 편성하고 철강·알루미늄·과생상품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4000억원 규모의 ‘철강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과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불공정 수입 대응을 위해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제 3국·보세구역 등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신동빈 “지속가능 모빌리티 기술이 핵심” (롯데 회장)

롯데, 일본서 모빌리티 비전 공개
친환경 밸류체인 전면내세워
“R&D·인재 확보 아끼지 말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3일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재팬모빌리티쇼 2025’의 롯데관을 찾아 그룹의 모빌리티 사업을 점검했다.

롯데는 이번 ‘재팬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하며 해외 모빌리티 행사에는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는 지난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캐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7개사가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소개한다.

롯데관은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L.M



신동빈 롯데 회장은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재팬모빌리티쇼 2025’를 방문했다. /롯데

obility Panorama)’를 주제로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시존’과 ‘모빌리티 체험존’으로 나눠져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등 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알린다.

전시존에서는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모빌리티 내·외장재 실물이 전시되고 에너지

지 제조공정을 소개하는 수소 밸류체인과 자율주행 화물차, 배송로봇 등의 영상이 시연된다. 체험존에서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 체험, RC카 운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벨리콤 포토존도 마련된다.

신 회장은 모빌리티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 인재 확보에 자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신 회장은 현대자동차·기아, 렉서스, 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BYD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전시관에도 방문해 관련 사업 트렌드를 파악했다. 롯데는 전기차 충전,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관련 분야에서 협업 방안을 타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상 최대 5.5조 수주

10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 돌파
글로벌 CDMO 위상 공고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하며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K바이오’ 대표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519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연간 수주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 5조4035억원을 돌파했다. 창사 이래 누적 수주액은 20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올해만 초대형 수주를 두 건 올리

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2조747억원의 계약을 맺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이 이어졌고 8월에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8001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올리는 등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2759억원(2억15만달러) 규모의 위탁생산(CMO) 증액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계약금액은 기존 2420억원에서 5179억원으로 114% 커졌고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

로 연장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압도적 생산능력, 검증된 품질 역량,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역량인 총 78만4000리터(L)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8만 리터의 5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제2 바이오캠퍼스 시대의 초석을 닦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스마트폰 시장 AI 경쟁 격화… ‘성능·효율’ vs ‘사용자 경험’

〈삼성〉

〈애플〉

삼성 신규 AI 에이전트 추가 검토
고성능 AP 기반 온디바이스 강화

애플 시리, AI 기반 웹검색 추가
18시리즈 ‘A20칩’ 적용 가능성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업계 양강 구도를 이루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시리즈에 AI 기능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AI 기능을 중심으로 성능과 효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플은 AI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6 시리즈에 갤럭시 AI와 구글의 제미니에 외에도 새로운 AI에이전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 많은 AI에이전트로 통합해 갤럭시 기기 전반의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4시리즈부터 AI를 핵심 기술로 내세우며 실시간 번역, 이미지 편집 등 온디바이스 AI를 차별화 요소로 강조해왔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향후 온디바이스 AI기술이 고도화되면 실시간 생성 번역, 음성·텍스트 변환, 사진·영상 편집 등 멀티모달 AI 기능을 스마트폰 단말에서 직접 구현해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애플 또한 내년 AI집사 서비스 ‘시리’에 구글 제미니에 모델을 적용해 AI 기반 웹 검색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에 맞춤형 제미니에 모델을 의뢰해 자사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I음성비서 시장에서 애플은 기술력 측면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구글 제미니에가 시리에 적용된다면 아이폰의 AI 성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구글 제미니에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검색기능 등을 통해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이 강화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될 모바일프로세서(AP)를 통한 기술 경쟁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S26시리즈에 2나노미터(nm) 공정으로 제조하는 자체 AP인 엑시노스2600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엑시노스2600은 AI 연산을 담당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벤치마크 기준 수치로 엑시노스2600은 싱글코어 3309점, 멀티코어 1만1256



지난달 서울의 한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7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퀄컴의 차세대 주력 칩인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 대비 CPU 멀티코어 성능이 약 14% 더 높은 수준이다.

애플은 내년 공개되는 아이폰18에 2나노 공정 기반의 새로운 A20칩을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A20칩이 이전 세대인 A19 대비 성능이 15% 빠르고 전력 소모가 30%났을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AI 경쟁이 스마트폰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9%로 애플(18%)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개 분

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으며 지난 7월 갤럭시Z플립과 폴드 등 신제품 효과와 AI 기반 경쟁력 강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는 호조를 보였으나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가 기대만큼의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은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AI가 사용자의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개인 맞춤형 경험을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정제마진 회복세… 정유업계, 실적개선 속도

국제 복합 정제마진 13달러선 회복
정유사, 친환경 중심 체질개선 나서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배럴당 4~5달러)을 크게 웃도는 1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정유사들이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업계는 이번 회복세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친환경 연료·배터리 중심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상반기의 깊은 부진을 털어내고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5332억원, 영업이익 57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233억원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에쓰오일은 매출 8조4154억원, 영업이익 2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고, HD현대오일뱅크도 매출 7조3285억원, 영업이익 1912억원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오는 7일 실적을 공개하는 GS칼텍스 3분기 매출은 약 10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75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된다.

이번 실적 개선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국제 복합 정제마진의 급등이다. 지난달 둘째 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3.1달러(약 1만8700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2월(14.1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손익분기점(4~5달러)을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구입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유



에쓰오일 울산공장

/에쓰오일

사의 수익성을 가능하는 핵심 지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기 둔화 여파로 정제마진이 5달러 안팎에 머물며 정유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다. 실제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총 1조35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3분기 들어 글로벌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한 이후 러시아의 일일 정제 처리량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인 500만배럴로 떨어졌다. 이는 계절 평균 대비 7% 이상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세브런 정유공장 화재로 현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공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수요 측면에서도 정제마진 상승 요인이 겹쳤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용 연료와 항공유, 윤활유 등 주요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항공유의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정유업계는 이번 정제마진 호조를 단기 실적 회복의 ‘끝’이 아닌 구조 전환

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사업에서 확보한 이익을 배터리·소재 투자로 돌리고 있고, S-Oil은 울산 석유화학 복합시설인 ‘샤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GS칼텍스는 바이오연료·수소 혼합연료 등 저탄소 연료사업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며, HD현대오일뱅크도 탄소포집(CCUS) 기술 도입과 친환경 윤활기유 생산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회복된 지금이 탈(脫)탄소 시대 대응 투자에 속도를 낼 적기”라며 “정유 4사의 실적 반등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윤재성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정유사 재고평가손실이 불가피해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김영섭 대표, 연임 포기… 후임 선임절차 착수

KT 이사회

전 가입자 대상 유심 무료 교체 결정

김영섭 KT 대표(사진)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KT는 고객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시행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열린 KT 이사회에서 연임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이사회는 즉시 후임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KT 차기 CEO는 이사회 산하 이사회보추천위원회가 사내의 인사를 심사·추



천하고,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공개모집은 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날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심 무료 교체도 결정했다. KT는 5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고객은 홈페이지 또는 전담센터(080-594-0114)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seoh@

LG엔솔, 캐나다 합작공장 ESS 생산 확대

북미 ESS 시장 공급 역량 강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에 세운 합작공장이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며 생산 체계 재편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 합작법인 넥스트스타에너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공장 내 일부 자동차 전지 라인을 ESS용 전지 라인으로 전환해 연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이로써 넥스트스타에너지는 LFP와 NC 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게 됐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전기차 시장 둔화를 상쇄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생산 조정을 통해 급성장 중인 북미 ESS 시장에 대한 공급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미국 미시간주 플랜드 공장을 LFP 기반 ESS 생산 기지로 전환하며 현지에서 가장 선제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캐나다 공장 라인 전환은 이러한 리밸런싱 전략의 연장선으로, 생산 효율화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관희 기자 wkh@

차세대 기술 내재화로 성장축 재편... '포스트 EV' 본격화

산업의 최전선

LG 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전환기에 맞춰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생산망 확충을 앞세워 성장 2단계에 진입했다. 국내 총복 오창 공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공정을 내재화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현지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고체와 건식전극 등 미래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현지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장기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편집자주〉

◆ESS로 실적 반등... '포스트 EV' 성장 모멘텀 확보

전기차 수요 둔화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서자,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에 집중하면서 실적 반등을 이끌어냈다.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매출은 5조6999억원, 영업이익은 601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4.1% 증가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제외하더라도 235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경쟁사인 삼성SDI와 SK온이 적자를 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수익성을 유지한 것은 ESS 수요 증가와 공급계약 확대 덕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들어 ESS 사업에서 수주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했다. 미국 내 탈중국 기조와 현지 리튬·인산·철(LFP) 제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6년간 13GWh 규모의 주택용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주요 전력망 ESS 고객사와도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3분기 ESS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20GWh로 확대됐다.

특히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 북미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량 생산한 최초의 기업으로, 지난 6월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산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

업 등 급증하는 전력 저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대규모 ESS 입찰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시행한 1조원 규모의 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24%를 확보한 바 있으며 다음 달로 예상되는 2차 입찰에서도 수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SS 수요 급증에 영업이익 34% ↑ AMPC 제외해도 2358억 흑자 유지 북미 주택용 ESS 13GWh 계약 체결 수주잔고 전분기比 두 배 120GWh 달성 중앙입찰 시장서 점유율 24% 확보

◆오창 '마더팩토리', 차세대 기술 내재화의 중심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차세대 기술 내재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건식전극과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공정을 검증하고 양산으로 전환하는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건식전극공정 파일럿 라인을 설치했으며, 전고체전지 파일럿 라인도 가동 중이다. 건식전극은 2028년, 전고체전지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2023년 1조373억원, 2024년 1조881억원을 투입했다. 올 상반기에도 연구개발비로 6023억원을 투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구인력

은 약 4500명에 달한다. 국내 인력의 상당수가 R&D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글로벌 생산시설의 기술의 허브인 만큼 R&D 투자 및 인력 확보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확보한 기술 역량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 효율화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기술을 내재화한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향후 모든 글로벌 거점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북미·유럽 생산망 확충...중장기성장 동력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대,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축했다. GM과 합작한 오하이오 '얼티엄셀스1'(연 40GWh)은 2022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테네시 '얼티엄셀스2'(연 40GWh)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해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미시간 랜싱 단독공장(50GWh), 애리조나 단독공장(36GWh),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30GWh), 캐나다 스텔란티스 합작공장(49GWh) 등 대형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모든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 내 총 생산능력은 약 300GWh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일부 라인을 ESS 전용 L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해 전력망용 ESS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건물.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전기차 캐즘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엄 라인인 46시리즈와 하이니켈 배터리부터 LFP,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 배터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오창 마더팩토리, 전고체 검증 중 건식전극 2028년 양산 목표 설정 북미 300GWh 생산망 단계별 완성 폴란드 공장 ESS 전용 라인 전환 오창 기술, 해외 생산거점으로 확산

또한 파우치, 원통형, 각형 등 폼팩터 전 영역에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ESS, 휴머노이드 로봇, 항공, 건설공구 등으로 응용 영역을 넓히며 신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성장 축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전기차 캐즘 등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장기적으로 펀더멘털 경쟁력 강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중인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은 답을 찾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면
(세계 각지에서 직접 찾아낸다는 답)

매연도 소음도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답)

AI시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면
(누구에게나 꼭 맞는 다양한 해법을 준비한다는 답)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李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AI 시대 여는 예산… 고급인재 양성·첨단기술 R&D 집중”

韓美 관세협상 등 성과 알려
역대 최대규모 내년 예산 집행
AI 대전환에 10조1000억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

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조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

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높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민생·경제 살리는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살포”

與 “AI 시대 고속도로 구축해야
이념 넘어서 ‘미래 통합’ 선언”
野 “728兆 슈퍼예산은 빚 잔치”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서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

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

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

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부·울·경, 韓 산업 심장… 더 크게 성장하도록 지원”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가덕도 신공항, 해수부 이전 등
예산·정책 역량 집중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산업적 중요성을 짚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부·울·경 지역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고 수출경제 전진기지”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같이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이 몰려 있고 금융, 우주, 원전 산업 등 미래 산업도 도약을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실현된다”며 “우리 당은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적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물류, 금융, 해양 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인프라와 기관이 함께 가는 해양수산부의 온

전한 이전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울산은 관세협상 타결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지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며 “AI(인공지능)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AI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울산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경남은 우주, 항공, 방위, 원전 산업 중심 도시다. 경남이 한국의 톨루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성평등부 기본과제, 구조적 성차별 해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부 국정감사 참석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장관이 4일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우선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나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란 용어보다 다른 성별이 불이익을 느끼는 문제라고 부르고 싶다”며 “자히 부처가 아니면 (이를) 듣고 사회 통합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지는 장관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iM뱅크, 새 수장 찾기 레이스

지주-은행 내부핵심 4인 물망

성태문·천병규·강정훈·김기만 등
차기 행장에 내부출신 인사 거론
12월 초 숏리스트 윤곽 드러날 듯
황병우 회장 의중, 인선 향방 좌우

iM뱅크의 차기 은행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외부 후보군보다는 iM뱅크와 iM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이 차기 행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iM금융지주는 지난 9월 말 iM뱅크의 자회사 경영 승계 절차를 본격화했다. 절차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후보군(숏리스트) 선정까지의 과정은 외부 기관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iM금융 임추위는 앞서 지난 2024년에는 12월 초 숏리스트를 확정된 뒤, 황병우 현 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황병우 현 행장은 겸직 중인 iM금융지주 회장직에 전념하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부 출신 인사가 차기 행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 전략을 지속중인 만큼 전략의 연속성을 위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관측에서다.

차기 은행장 하마평에는 iM금융지주의 핵심 임원 2명과 iM뱅크의 핵심 임원 2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iM금융지주에서는 성태문 그룹가치경영총괄 부사장과 천병규 그룹경영전략총



괄 부사장이, iM뱅크에서는 강정훈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김기만 수도권그룹 부행장이 유력한 후보다.

성태문 부사장은 iM뱅크에서 마케팅 본부장을 지냈고, 지주사에서는 ESG를 비롯한 브랜딩 전략 전반을 전담 중인 인물이다. 성 부사장은 자본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등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병우 현 회장이 iM뱅크(당시 DGB대우은행) 은행장 발탁 이전까지 김태오 DGB금융 전 회장과 보조를 맞춘 것과 유사하게 황 회장을 보좌 중이다.

천병규 부사장은 영업 전략 및 재무에 특화된 인물이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당시 은행장 직속 TF(태스크포스)의 지휘봉을 잡은 바 있고, 전환 이후의 영업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부행장은 은행 경력과 지주사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iM뱅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김기만 부행장은 iM뱅크(당시 DGB대우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능력과 조직 장악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의 영업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김 부행장이 전국구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수도권 본부를 지휘해온 것 또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금융권에서는 최종 후보군 선정에는 황병우 회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황 회장이 4인으로 구성된 임추위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iM금융그룹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빠른 외형 성장을 지속중인 만큼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고자 하는 황 회장의 의지도 강해서다.

차기 은행장 인선은 이르면 오는 12월 초 숏리스트 선정과 함께 가시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선임된 신임 행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은행, 가업승계 전담조직 신설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
권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우리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가업승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세금부담, 후계자 육성의 어려움,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경영의 지속성과 세대 간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국내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은 우리은행을 포함해 17개 안팎이다.

우리은행은 새롭게 신설된 '가업승계 전담조직'을 통해 국내 금융환경과 제도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권역별 맞춤형 지

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 공급을 통해 직접 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가업승계 ▲지분 이전 ▲자산관리 ▲자금지원 ▲M&A 중개 등 금융서비스 전반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기업금융 전담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비롯한 우리은행 기업 창구 또는 투체어스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를 가업승계 금융서비스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라며 "국내에서 더 많은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분당구 아파트 전경.

/성남시

분당 국평 26억 시대... 용인 수지도 들썩

더샵 분당티에르원 10일 특공 시작
102가구 일반분야... 84㎡ 26.8억
수지, 분당의 약 65% 수준 동조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26억원대에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당 집값이 뛰면서 인근 용인 수지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를 3단지를 리모델링한 '더샵 분당티에르원'이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더샵분당티에르원은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단지다. 총 873가구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102가구(전용면적 66~84㎡)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66㎡ 19억7400만원, 74㎡ 23억1800만원, 84㎡ 26억8400만원이다.

최근 분당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은 전용 84㎡가 지난 달 18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고, 인근 '삼성한신' 역시 84㎡가 21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수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분당구의 약 65% 수준에서 동조화(커플링)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최근 10년 간 수지 아파트 시세는 분당의 65.8%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온 만큼 수지 역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수지에서 비교적 신축으로 꼽히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2019년 입주)' 전용 84㎡는 올해 9월 15억3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2019년에 입주한 단지다.

수지에서는 다음달 GS건설이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총 4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안상미 기자

강태영 “동남아 핵심 산업군과 협력 강화”

한화에어로·효성 베트남 법인 방문
현지 경영진과 금융협력·동향 공유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한화에어로엔진과 효성 베트남 법인을 잇달아 찾아 현지 경영진과 글로벌 금융협력 및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0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엔진 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한국항공 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중인 현지 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우량기업 대상 직접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현지 한화에어로엔진 경영진과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 및 항공 산업 관련 금융 수요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이어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11월 3일 호치민 동나이성에 있는 효성 베트남을 방문해 효성그룹의 베트남 투자 현황과 현지 사업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

다. 효성 측과 현지 금융·외환거래 지원 확대 및 ESG 기반 설비투자 관련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NH농협은행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현지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실질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제조·항공·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군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809억

전체 사업본부 원가율 안정화로
누계 영업이익률 4.0%로 개선

GS건설의 실적이 원가율 안정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2080억원, 1485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수주는 4조452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조2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3.2% 증가했고, 누적 기준으로는 9

조4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업이익은 1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3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0% 늘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건축주택사업본부 고원가율 현장 종료와 함께 인프라, 플랜트사업본부의 이익률 정상화 등 전체 사업본부의 원가율이 안정화되면서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년 2.6%에서 4.0%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규수주는 3분기 4조4529억원으로 누적 기준 12조3386억원을 기록해 가이던스(14조3000억원) 대비86.3%를 달성했다. 사업본부별로는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쌍문역사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836억원),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5536억원)등의 성과를 올렸다. 인프라사업본부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컨테이너부두1~1단계(2공구)(1100억원)를 수주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3분기 부채비율은 239.9%로 전년말 250.0% 대비 10.1%포인트(p) 하락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뱅 정부지원금 찾기 가입자 5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의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지원금 찾기'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출시 이후 일평균 1만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하며, 50일 만에 누적 이용자 5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 혜택은 매월 약 1000건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고

객이 놓치지 않도록 챗봇 기반의 기초 정보 등록 기능과 '내 관심 지원금'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정부지원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 '정부지원금 찾기' 이용 고객 5명 중 1명은 '내 관심 지원금' 등록 기능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상생페이백',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내일배움카드' '옴뎀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나유리 기자

도크 가득 채운 특수선 블록… “美 함정 MRO 사업 박차”

르포

HJ중공업 영도 조선소

스키드 공법 통해 건조물량 극대화
군함 등 2028년까지 수주물량 확보
美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

“미국 항공모함도 정박할 수 있는 수심과 부두를 갖춘 만큼 향후 미 해운 함정 MRO 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지난달 31일 찾은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만난 유상철 대표는 “MR O 시장은 우리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한국 해군 함정의 상당수를 건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HJ중공업



지난 31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유상철 HJ중공업 대표가 한국해양기자협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HJ중공업은 상선뿐 아니라 함정, 특수목적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974년 국내 함정부문 방위산업체 1호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해군의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초계함, 상륙함, 공기부양정, 해양경찰의 경비함 등을 건조해 오며 국내 최대 함정 건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취항한 한국 최초의 극지용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7500톤급)의 기본설계와 건조도 HJ중공업이 맡았다.

영도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오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소와 비교해 좁은 야드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소의 상징인 골리앗 크레인도 없지만 자체 개발한 3000톤의 무게를 옮길 수 있는 해상 크레인을 활용해 작업하는 ‘스키드 공법’을 진행하고 있다. 배한 척을 짓는데 160개 이상의 블록이 들어가는데 이를 최대한 조립한 뒤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도크 안으로 옮겨 넣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통해 도크 점유 시간을 줄이고 연간 건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날 영도조선소의 3개 도크는 건조를

위한 선박으로 채워져 있었고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특수선 블록을 조립하는 현장에서는 해군 경비함과 공기부양정이 눈길을 끌었다. 또 MRO 작업을 위해 안벽에 정박한 독도함도 자리하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23억원 규모의 독도함 창정비사업과 254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창정비사업을 확보했다. 고속상륙정은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워 해안에 상륙하는 전천후 첨단 함정으로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영도조선소는 2028년까지 수주물량을 확

보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HJ중공업은 앞으로 특수선 분야에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 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통한 실적 상승세도 기대하고 있다. 유대표는 “올해 미국 해군 함정 MRO에 필요한 함정정비협약(MSRA) 인증 실사를 마쳤고 1~2개월 내 결과가 나온다”며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 될 경우 기존 실적에 ‘보너스’로 성장 여력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도조선소는 외국인 인력 확보에도 다른 조선소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다국적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고 한국가의 근로자만 채용해 문화적, 언어적인 벽을 없앴다.

유 대표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시절 기술공들 200여명을 선발해 채용했다”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작업 지시 속도가 빠르고 단일 국적 체계라 관리 효율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APEC 참석차 방한한 필리핀 이주노동부장관에게 현장 근로환경을 공개했으며 추가 인력이 필요한 도장 분야에 대해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모듈형 냉각 솔루션 선보인다

美 플렉스와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냉각 솔루션 방식·활용 방안 다양화

LG전자가 미국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플렉스와 협업을 냉각 솔루션 적용 방식과 활용 방안을 다양화한다.

LG전자는 플렉스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모듈형 냉각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의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CDU), 데이터센터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컴퓨터룸 공기 처리 장치(CRAH) 등 고효율 냉각제품과 플렉스의 IT·전력 인프라 등을 결합해 모듈형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 기반 구조로 설계된다. 사전 조립 및 테

스트된 냉각 모듈 형태로 제작돼 현장에서 다른 모듈들과 결합된다. 고밀도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냉각 모듈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열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빠른 배포와 설치가 가능해 기존 냉각 솔루션과 차별화된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이 간소화되고,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확장형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렉스는 데이터센터는 물론 자동차, 헬스케어,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설계, 개발, 제조, 공급망 관리, 사후 서비스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전자제품위탁생산(EMS)분야

를 선도하고 있다. 올해 타임지(TIME)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LG전자는 공기 냉각과 액체 냉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냉각 기술을 앞세워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냉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각 용량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린 냉각수 분배 장치를 신규 개발한 데 이어, 데이터센터 냉각방식 중 전력효율지수(PUE)가 가장 낮은 액침 냉각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플렉스와의 협업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LG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모타빌리티, 영국 내 PBV 보급 협력

〈목적기반모빌리티〉

전동화 WAV 개발 리더십 확보

기아가 영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대상 리스 차량 운영사 모타빌리티(Motability)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기아 송호성 사장, 모타빌리티 앤드류 밀러 CEO, 다미안 오톤 CC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PV5 등 기아 PBV 라인업을 활용해 이동 약자용 모빌리티의 전동화 전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는 MOU에 따라 모타빌리티에 PV5 기본형 및 PV5 WAV 모델을 공급하고, 모타빌리티는 2026년부터 영국 현지에서 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모타빌리티 앤드류 밀러 CEO(왼쪽)와 기아 송호성 사장이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아는 전동화 WAV 개발 리더십을 확보하고, 모타빌리티는 중·장기적 전동화 전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양사는 WAV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향후 출시 예정인 기아의 대형 PBV ‘PV7’의 WAV 컨버전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화학-시노펙, 차세대 전지소재 개발 ‘맞손’

친환경 에너지·고부가 소재 분야 협력

LG화학이 중국 최대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 시노펙(SINOPEC)과 손잡고 차세대 전지소재 개발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중국 시노펙과 소듐이온전지(SIB)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노펙은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정유, 화학, 신에너지, 신소재 사업

을 아우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소듐이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공동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듐이온전지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자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면서도 리튬인산철(LFP) 전지보다 저온에서 성능 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안전성과 충전속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전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소듐이온전지 시장은 2025년 10GWh에서 2034년 292GWh 규모로 연평균 약45%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소듐이온전지 제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LG화학과 시노펙은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중국 등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보급형 전기차(EV) 시장을 타깃으로 소듐이온전지의 사업모델을 다각화하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및 고부가 소재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DI, 테슬라 ESS용 배터리 공급 협의

3년에 걸쳐 3조원 이상 거론

삼성SDI가 미국 테슬라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급 규모는 3년에 걸쳐 3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성사될 경우 글로벌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4일 공시를 통해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 ESS 담당 임직원이 최근 방한해 삼성SDI와 최소 3년 동안 매년 10GWh 안팎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한편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ESS 분야로 사업 중심을 옮기고 있다. 삼성SDI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SPE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해 북미 수요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원관희 기자

효율화·프리미엄·통합… LCC, 구조침체 탈출 ‘삼각 전략’

공급과잉 속 생존 분기점

제주항공 구매기 늘려 안정성 ↑
에어프레미아 장거리 승부수
진에어 통합으로 효율 극대화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적 침체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기재 운영 효율화, 프리미엄 서비스, 통합에 의한 규모 확대 등 각자 자구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과 노선 구조 재편을 통한 생존형 체질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유일하게 구매기 전략을 고수한다. 임차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구매기 비중 확대는 재무 안정성과 장기 운항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최근 보잉 737-8 8호기를 들여 총 보유기재는 44대, 이 중 구매기는 B737-800NG 5대와 B737-8 8대를 포함한 13대(약 29.5%)가 됐다.

구매기 확대는 리스크와 환율 부담을 낮춘다. 제주항공은 B737-8 기구매 도입으로 연간 약 14% 운용비 절감을



제주항공 B737-8 항공기.

/제주항공

기대한다. 미국 LCC 시장에서도 구매기 비중이 생존을 가른 선례가 있다. 지난 1980년대 항공 규제 완화 이후 치킨계임을 뚫은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총 810대 중 697대(약 86%)를, 2000년대 산업 재편기에 생존한 제트블루항공은 290대 중 264대(약 91%)를 각각 구매기로 운영했다. 반면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스피릿항공은 전체 213대 중 164대(77%)가 리스기였다. 업계에서는 높은 임차 비중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또 B737 단일 기종 운영으로 정비 효율을 높이고, 중·단거리 포인트투포인트(P2P)

노선 전략을 통해 숨은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LCC 중 유일하게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며 HSC 모델을 구축했다. 넓은 좌석 간격과 개인 모니터, 무료 스낵 등 FSC의 서비스 수준을 일부 결합해 경쟁력을 높였으며, 인천~LA 노선 점유율을 지난 2022년 12.9%에서 2023년 14%, 2024년 15.3%로 꾸준히 확대했다. 성수기·비수기 변동이 작은 미주 노선 집중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미국의 제트블루항공 역시 합리적 운임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합한 HSC 모델로 경쟁력

을 구축해 공급과잉 속에서 생존한 바 있다.

진에어는 에어부산·에어서울과의 통합을 통해 LCC 업계 첫 ‘단일 통합항공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시 보유 기재는 58대로 제주항공(44대), 티웨이항공(45대)을 앞선다. 수요가 높은 노선에 투입해 탑승률과 노선 수익성을 높이고, 단거리·관광 노선 집중으로 중복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노선 재분배 역시 향후 입지와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따른 시정조치로 장거리 노선 중심의 재배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 노선은 LCC 배정이 확정됐다. 특히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 운항 이력과 기반 경쟁력을 기반으로 추가 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각사의 독창적 소구점이 생존을 좌우한다”며 “제주는 구매기, 에어프레미아는 프리미엄 장거리, 진에어는 통합·규모의 경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며 “제주·티웨이·이스타항공의 외연 확장에 따라 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해양·문화 지역활력 제고

울산·신안, 새 특구 지정

중기부, 9곳은 ‘탁월 특구’로 선정

울산 동구·울주군이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이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로 각각 지정됐다. ‘공주 알밤특구’ 등 9개 특구가 올해의 ‘탁월 특구’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172개 특구가 있다.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5년부터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로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딩을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은 1028개의 섬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융합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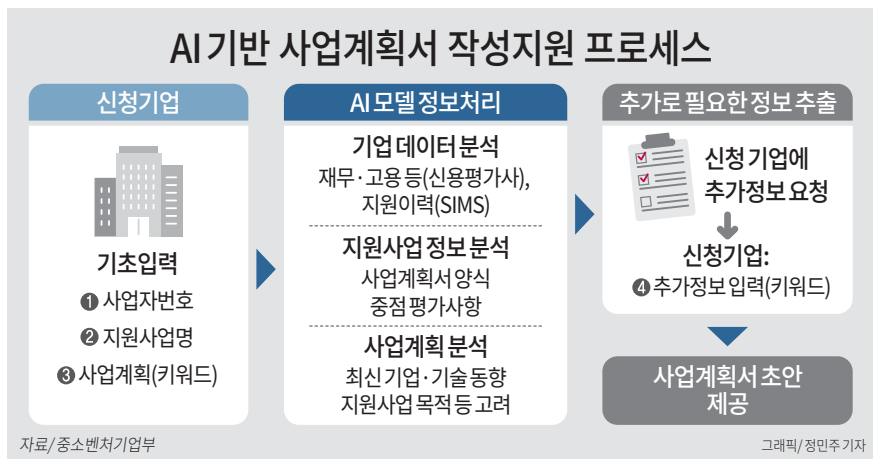
中企 지원 플랫폼 하나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기업마당으로 통합 지원절차 단순화
서류 평균 9→4.4개 행정부담 완화
브로커 차단·공공 서비스 혁신 추진

두개로 나눠졌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플랫폼이 ‘기업마당’으로 합쳐진다.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했던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시 인공지능(AI)이 적합한 사업을 손쉽게 찾아준다. 브로커 등의 불법 개입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로 나눠졌던 지원사업 정보를 기업마당으로 일원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약 2700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를 모두 볼 수 있고, 21종의 확인·인증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선 37개 신청체널과 연결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시 서류 제출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안

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모두 동참한다.

AI도 적극 활용한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인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AI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공고를 일일이 읽어가며 지원사업을 찾아야 했던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한다. AI가 기업의 업종·지역, 지원사업 수혜 이력, 사용자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식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소진공), 맞춤형 기술 공급기업 추천(기정원) 등 지원 대상별 특화된 정보도 제공한다. 정책·법령 등을 학습한 AI 민원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한성중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 체계가 사람 중심의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양, 조직안정·AI혁신 투트랙 ‘인사 단행’

이운익, 화학사업 총괄 새 수장
윤석환, 삼양패키징 대표로 내정
오승훈, IT전문가로 새롭게 합류

삼양그룹이 지난 1일부로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진행됐다. 그룹은 내부 인재 중심의 안정적 경영과 외부 전문가 영

이운익
삼양사 대표윤석환
삼양패키징대표오승훈
삼양테이스트팀 대표

입을 통한 혁신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를 통해 그룹 내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자

는 삼양이노켄,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삼남석유화학 등 전통 화학 소재 계열사로 구성된 화학1그룹장을 겸하며 삼양그룹의 화학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삼양사에 입사해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거쳤다. 그룹은 석화업계 불황 속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이 내정자를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방침이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가 차기 대표이사로 낙점됐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역임한

전략기획 전문가로, 펌트 용기와 아샵틱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화장품·퍼스널케어 전문 계열사인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이름을 올렸다.

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인 삼양데이터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이끈다. 오 대표는 한국IBM을 거쳐 유진아이티서비스와 티맥스비아이 대표이사를 지낸 IT 전문가로, 그룹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원관희 기자 wkh@

코웨이

폴컬러 초슬림 비데 선포

살균·세정·디자인 모두 업그레이드

코웨이가 초슬림 디자인에 다양한 편의 기능을 더한 ‘롤루 슬리믹 비데(BAS 49-A)’를 출시했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 롤루 슬리믹 비데는 자사 제품 중 가장 작은 크기인 83mm의 얇은 두께를 구현했다. 핵심 부품을 소형화하고 플랫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모델(BAS37-C) 대비 높이를 48% 줄였다.

분체부터 커버와 시트까지 이어지는 폴컬러 디자인은 욕실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색상은 ▲퀴즈 화이트 ▲스노우 실버 ▲브론즈 베이지 ▲티탄 실버 4가지로 구성됐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무선 터치식 리모컨도 비데에 맞춘 스노우 실버·브론즈 베이지·티탄 실버 3가지 색상으로 조합됐다. 형태는 계단·바·사각형 3종으로 사용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위생·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주기적으로 전기분해 살균수를 통해 유로·노즐·도기까지 3단계에 걸쳐 99.9% 살균한다. 노즐에는 오염에 강한 폴스테인리스를, 변좌에는 항균 처리 소재를 사용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롤루 슬리믹 비데

건강창업의 모든 것!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네카오, AI 신사업 성장에 3분기 호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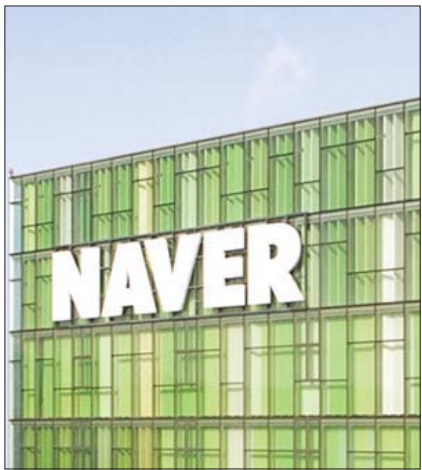
네이버, 매출 3兆·영업익 5688억
엔비디아와 ‘퍼지컬 AI’ 개발 협약

카카오, 매출 2兆·영업익 1638억
카톡 ‘챗 GPT’ 탑재로 AI 경험 확대

네이버와 카카오가 3분기 실적에서 모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신사업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부각된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양사 모두 전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온다. 특히 네이버는 엔비디아(GPU) 공급 확보를 통한 AI 인프라 강화,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으로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탑재하며 AI 기반 신사업이 향후 양사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 금융정보업체 에프엔 가이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약 3조 430억원, 영업이익은 약 568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12.06%, 8.2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서치·플랫폼, 커머스, 콘텐츠 부문에서의 고른 성장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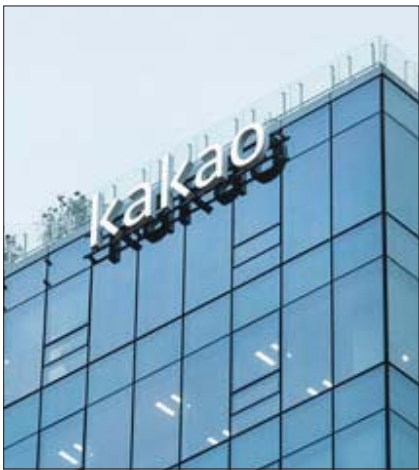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전경.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멤버십과 배송 확대,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인상 등이 중개·판매 매출을 견인하며 전년 대비 약 23.2%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또 콘텐츠 부문은 일본 시장에서의 ‘라인망가’ 매출 확대와 마케팅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같은 기간 매출 약 2조 236억원, 영업이익 약 163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5.32% 및 약 25.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비즈는 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7.6% 증가한 5457억원, 플랫폼 기타 매출은 약 16.4% 증대된 426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매출은 약 9824억원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퍼지컬 AI’ 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버티컬 AI 개발을 위해 협업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엔비디아는 네이버 및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 향후 26만장 이상의 GPU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단일기업 기준으로 GPU 확보 규모가 최대 수준이며, AI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풀스택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챗GPT 포 카카오’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오픈AI의 챗GPT를 카카오톡 내에 탑재한 형태로 별도 앱 전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이를 ‘카카오 톨즈’ 플랫폼을 통해 카카오톡·선물하기·멜론 등 자사 서비스와 연동하며 AI 경험을 확대할 전략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탑재라는 강점을 가져 국내 이용자 접근성을 확보했다”며 “AI 검색 기반 광고 도입과 구독 매출 확대 가능성도 커지면서 내년 특비즈 광고 매출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인프라와 서비스 양측에서 모두 준비하고 있어 향후 신사업 전개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면서 “다만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규제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네이버 밴드 개편맞이 행사

네이버가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밴드(BAND)’ 개편을 기념해 12월 5일 까지 리뉴얼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출시된 밴드는 폐쇄형 그룹 기능과 모임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로, 전 세계 187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니어 스포츠 그룹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홈 화면 개편 ▲탐색 편의성 강화 ▲개별 밴드 구성 개선 ▲일정 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밴드는 ‘내 밴드 탭’과 ‘새글 피드 탭’을 통합한 ‘글로벌 메인홈’을 새롭게 도입했다.

네이버는 리뉴얼을 기념해 12월 5일 까지 ‘NEW B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밴드 이용자에게는 ‘NEW B 스타터팩’을 지급하며, 미션을 달성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유튜브 쉐리·퀸잇·오늘의집 쇼핑 제휴프로그램 추가

유튜브가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의 새로운 파트너로 쉐리, 퀸잇, 오늘의집을 잇따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크리에이터는 오늘부터 쉐리와 퀸잇의 상품을 영상, 쇼츠, 라이브 스트림 등에 태그해 소개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초부터는 오늘의집 상품도 태그 가능해진다.

해당 제휴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제품 태그 기능을 통해 콘텐츠에서 바로 쇼핑 흐름을 연결할 수 있다. 영상, 쇼츠, 라이브 등 다양한 포맷에서 적용 가능하다.

2025년 6월 기준 국내 자격 요건을 충족한 크리에이터 중 45%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5년 3월 시점으로 95만 개 이상의 동영상에 제품 태그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과기정통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KDI 예타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약 5만 2000㎡)를 개발해 사이버보안 관련 8개 기관을 한데 모으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5417억원 규모로, 9층과 11층 짜리 2개 동(연면적 6만 5000㎡)에 정보보호 관련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주요 입주 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평시에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격 발생 시에는 탐지·차단·복구 등 대응 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韓 모바일게임, RPG 중심 성장… PC·디지털광고서도 성과

센서타워 ‘韓 게임시장 인사이트’
올해 인앱구매 수익 53억弗 전망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매출 1위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기업 센서타워(Sensor Tower)는 자사 디지털 광고 인사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다운로드 추세, 수익 구조, 장르별 변화, 주요 타이틀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한국 게임 시장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24년 성장세로 전환해 인앱구매 수익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81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6% 추가 성장한 854억달러, 2028년에는 10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스팀 게임 구매 수익은 2025년 119억달러로 확대되며, 모바일과 PC를 합한 글로벌 디지털 게임 수익은 1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에는 2020년 6억 6000만 건을 정점으로 완만히 조정돼 2025년에는 약 4억 6000만 건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 중 70%는 Google P



마비노기 모바일. /넥슨



스텔라블레이드 대표 이미지. /시프트업

lay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앱구매 수익은 팬데믹 기간 55억달러 이후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며 2025년 5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장르별로는 RPG가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하며 여전히 시장의 핵심 장르로

자리했다. 전략(+22%), 퍼즐(+24%), 시뮬레이션(+16%) 장르도 강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4X 전략(+25%), 턴제 RPG(+138%), 마지(+89%) 게임이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매출 순위에서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5월 출시 후 9월까지 1억 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가장 성공적인 신작으로 꼽혔다. ‘RF 온라인 넥스트’, ‘마비노기 모바일’ 등 총 7개의 신작이 수익 성장 상위 10위 안에 들며 신작 중심의 시장 활력을 입증했다.

센추리게임즈의 4X 전략 게임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은 전월 대비 58% 매출 증가로 매출 2위, 성장 3위에 올랐고 신작 ‘킹샷’은 성장 8위를 기록했다. 캐주얼 장르에서는 MicroFun의 ‘씨사이드 이스케이프’와 ‘가십 하버’가 각각 67%, 222% 성장률을 보이며 상위권에 올랐다. TOP10 캐주얼 게임은 모두 해외 퍼블리셔의 작품이었다.

PC 플랫폼에서도 한국 게임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는 6월 스팀 출시 후 첫날 동시접속자 18만명, 나흘 만에 100만 다운

통해 반복적인 테스트와 설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다양한 AI 시나리오를 신속히 검증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로, 이번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장비의 설계 문서를 학습시켜 인프라 구축부터 파라미터 설정, 설치,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각 분야의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장비를 설치하던 과정을 AI가 대체

함으로써 설치 시간 단축과 오류 최소화 가능해졌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 대비 기술 지원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도 해당 기술을 활용해 기술 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술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에이전트 기반 기술을 확보해 ‘자율 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AWS, 소프트웨어 자동설치 개발

전 과정 에이전틱 AI 활용
설치 시간 단축, 오류 최소화

LG유플러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활용, 복잡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자동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했

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 네트워크 장비처럼 작동하도록 구현된 가상 장비다. LG유플러스와 AWS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력해 설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Amazon Bedrock’과 ‘Storantis-Agents SDK’를 적용했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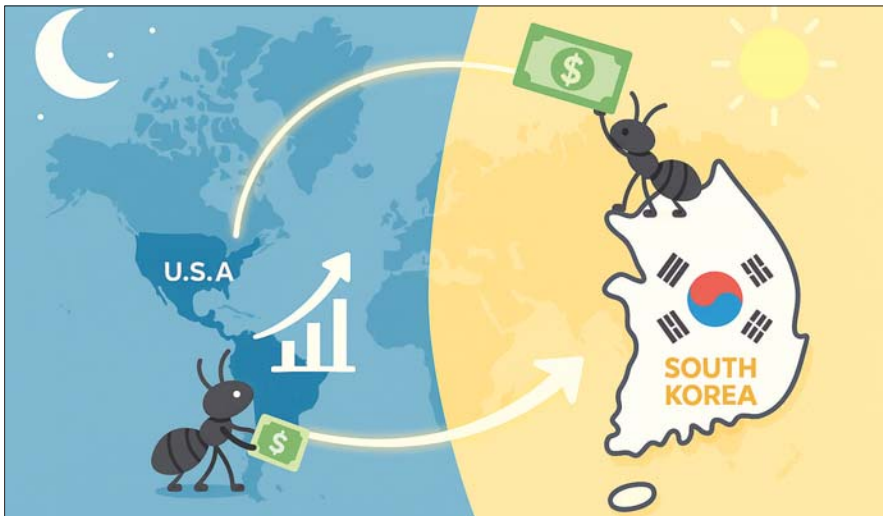
이젠 낮에도 美 주식거래… 시스템 신뢰회복·안정성 ‘핵심’

1년 3개월 만에 주간거래 재개장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거래 가능
증권사, ‘0원 수수료’ 등 경쟁 불붙어

“이젠 미국 주식을 낮에도 거래할 수 있으니, 한결 여유롭고 덜 답답하지 않을까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거래 루틴이 바뀐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사태로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8개 주요 증권사는 4일부터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서머타임 미적용 기준) 미국 주식 거래를 추가로 할 수 있게됐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복귀가 아니다. 지난해 블루오션(Blue Ocean) 대체거래소(ATS)의 시스템 장애로 9만여 계좌, 6300억원 규모의 주문이 일괄 취소된 이후, 금융당국은 복수 회선 연결과 보상 체계를 의무화하며 구조를 전면 개편한 후 이뤄진 서비스다. 각 증권사는 블루오션 외에 문(Moon), 브루스(Bruce) 등 복수 ATS와 계약을 맺어 주문을 분산 처리하고, 거래 오류 발생 시 잔고



ChatGPT에 생성된 ‘데이마켓 거래 재개로 미국 주식을 낮에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서학개미)들’ 이미지.

를 사고 전 시점으로 복원하는 ‘블랙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복수 거래망 구축과 보상 기준 마련을 점검한 뒤 재개를 승인했다”며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번 재개 전 증권사별 실거래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문 처리 속도, 복구 체계, 거래 오류 대응 절차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데이마켓 재개로 국내 투자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국 주

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프리마켓(18시~23시30분), 정규장(23시30분~익일 6시), 애프터마켓(6시~9시50분)까지 더해지면 하루 23시간 50분 동안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주간거래 시간에는 지정가와 시장가 주문이 모두 가능하며, 미체결 주문은 애프터마켓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다.

이번 거래 재개의 핵심은 ‘신뢰 회복’이다. 지난해 사태는 국내 증권사와 미국 대체거래소(ATS) 간 책임 공방이 처음으로 불거진 사건으로, 시스템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그만큼 이번 재개는 1년 넘게 이어진 제도·시스템 보완의 결과물이며, 만약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투자 인프라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데이마켓 서비스 재개로 시장 변동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는 “지난번 시스템 마비를 겪고 나선 불안해서 분장 때만 거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주간거래 재개 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 ATS를 통한 주문 배분, 블랙 시스템 점검, 충분한 실주문 테스트 등 준비지침을 준수하며 막바지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며 “늘어난 거래 시간에 맞춰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환경은 편리해졌지만, ATS 거래의 한계는 여전하다. ATS는 정규거래소와 달리 시장 참여자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제한적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호가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고, 거래

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주문 대기나 체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 재개를 ‘서학개미 시즌2’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20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미국 비중은 80%를 넘는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로 자금이 일부 회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이에 발맞춰 증권사들은 거래 시간 확대에 맞춰 수수료 경쟁에 나섰다. 메리츠증권은 ‘0원 수수료’를 내걸었고, 브로커리지가 큰 대형사들은 체결 속도와 UI 편의성을 개선해 플랫폼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마켓 거래가 멈춘 사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실시간 환전, 자동 알림, 테마형 정보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간거래는 단순히 거래 시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이제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장애 없는 시장’을 얼마나 구현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임원 전원 국내주식 매매 금지

내부통제강화 TFT, 윤리경영 강화
오는 6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
법적·평판 리스크 사전 차단

NH투자증권이 임원 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며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치는 내부통제강화 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내재화와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NH투자증권은 4일 전(全)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강화 TFT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6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영진과 주요 의사결정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원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매수 금지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이며, 해외주식과 ETF 등은 매수 가능



NH투자증권은 4일 오전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임원 50여명은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등 윤리경영 내재화를 다짐했다. /NH투자증권

하되 기존 보유 주식의 매도는 허용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조직 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윤병운 사장은 “임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윤리경영으로의 근본적 전환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는 경영진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자성과 책임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들은 윤리의식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를 다짐하며 바른 행동을 통한 투명한 자본시장 구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10월 30일 ‘주거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임원을 담당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내부통제강화 TFT(테스크포스팀)를 신설했다. 윤병운 사장을 TFT 장으로, 준법·감사 등 관련 임원들을 포함해 구성한 해당 조직은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임직원 전체의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박헌주재단이 1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제7회 미래에셋 미팅 프로젝트(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미래에셋박헌주재단

네트워크 활동으로 장학생 주도성장 지원

미래에셋박헌주재단

‘미래에셋 MEET-UP Project’ 열어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연사 나서

미래에셋박헌주재단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학생들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7회 미래에셋 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4일 미래에셋박헌주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1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해외교한 장학생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MEET-UP Project’는 2023년 11월 첫 개최 이후 매해 장학생들의 주도적 성장과 교류를 위한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특강과 유익한 네트워킹 활동이 마련됐다.

특히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연사로 나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 교수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사고의 기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봄학기 미국 머레이주립대학(Murray State University)로 파견을 다녀온 신현지 장학생은 “금융공학 전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기술을 다룰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에셋박헌주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EET-UP Project는 과학·기술·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서로 다른 배경의 장학생들이 함께하며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540여 명의 장학생이 참여했다.

/허정윤 기자

금투협,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 돌입

오는 19일까지 공모 진행

금융투자협회가 4일 서유석 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7대 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후추위는 서류·면접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 총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로 차기 협회장을 선임한다.

제7대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이사과 황성업 신영증권 사장 등 2명이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유상호·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오고 있으며, 서유석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도 주목된다.

금투협회장은 회원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투표권은 분담금 비중에 비례해 커진다. 그만큼 대형 회원사의 중의 선거 결과로 직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회장으로 국회·금융당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에 현 정부 관심이 크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허정윤 기자

공정위, 기술탈취 대응 틀 바꾼다

감시관 상시투입·피해입증 완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감시관 12명 위촉·현장 감시 강화
익명제보 핫라인으로 신고 확대
입증책임 전환해 中소 부담 완화
피해기업 용자·소송지원 기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은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 현장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행위를 포착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게 된다.

그간 기술탈취 피해에도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다.

감시관은 현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탈취 혐의를 제고하고 제보 내용은 곧바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된다. 또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해 실명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핫라인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기술탈취 조사 및 제재 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량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45건의 기술탈취 사건을 제재하고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빈발업종별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감시관 제보를 종합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부품 등 주요 업종 중심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술탈취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리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가해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등 구체적 행위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 폐기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소송지원·피해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사인금지정규제' (하도급법 개정)를 통해 피해기업은 공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기술탈취 행위 중단이나 금형·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경찰청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기술탈취 예방·적발·구제 전 과정을 연계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AI·수소 혁신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개막

한국전력공사가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기술·산업·지역·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장으로 꾸려진다.

5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사로 나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글로벌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외 전력사 CEO, 주한 대사, 대학총장 등 약 7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신기술 언팩(Un-packed)'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의 혁신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인공지능(AI) 추론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Rebellions)과 수소연료전지선박 개발사 빈센(Vinssen)이 대표 주자

로 나선다.

올해 BIXPO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대학, 지자체가 참여해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리더관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 등을 운영한다.

대기업관에는 LS그룹, 포스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며, 중소기업관에서는 에너지산업 전 밸류체인을 망라한 AI·로봇·친환경 융복합 기술이 공개된다.

KEPCO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의 전력산업과 혁신벤처 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미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AI 유니콘 WEKA, 이스라엘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업 StoreDot을 비롯해 국내외 유니콘 6개사와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3곳이 참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굴폐각으로 미세먼지 감축

통영시와 순환경제 협력

버려지던 굴폐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제로 재활용한다. 한국남부발전이 굴폐각 처리가 골칫거리였던 통영시와 손잡고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1석3조' 순환경제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와 '굴폐각의 석회석 대체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영시의 고질적 환경문제였던 굴폐각 처리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발전소에서는 배출가스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광산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왼쪽)과 통영시 천영기 시장(오른쪽)이 지난 3일 통영시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 굴폐각 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부발전

지적돼왔다.

이에 남부발전은 어촌지역에서 다량 발생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웠던 굴폐각을 대체 자원으로 눈여겨봤다. 지난해부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굴폐각을 미세먼지 저감용 첨가제로 활용하는 현장 실증을 진행한 결과, 석회석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23개사 새로 뽑았다

수출금융 100억·보험료 90% 할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성장 플래닛(Planet)' 회원사 23곳을 새로 선발했다.

무보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비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무보가 지난해 7

월 출범시킨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육성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수출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연간 수출 100만 달러 이하(아미징스타) △3000만 달러 이하(라이징스타) △3000만 달러 이상(샤이닝스타)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회원은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최대 100억원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30건 무료 제공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자금 지원 시에는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3년간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과 연대보증 입보 면제 등 과격적인 조건을 부여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뒷받침한다.

무보는 앞서 지난해 41개사를 첫 대상사로 선정하고 총 1조원 상당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라이징스타 신규 회원사로 선정된 씨제이케이 김상욱 대표는 "수출성장 플래닛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차게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푸드워크 코리아’ 성황리 폐막

42개국 950개사·5.6만명 참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2025 푸드워크 코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aT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11월1일 기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푸드워크에는 42개국 9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6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식탁: 혁명, 푸드워크가 만드는 내일의 식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제품과 혁신 기술이 전시됐다. 정부와 aT는 푸드테크 정책홍보관, 전략작물 홍보관, 농업과 기업 간 상생 협

력 우수사례 홍보관, 농식품 수출 상담관 등 여러 전시관을 운영했다. 한국 농식품의 가능성 및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특히 A홀 전시장에 마련된 '푸드테크 정책홍보관'에서는 3D 식품 프린팅과 AI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양분석 서비스 등 최신 푸드테크 기술을 선보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여성벤처 창업·성장 지원 나서

에너지 신사업·ESG 역량 강화 추진

한국서부발전이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손잡았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벤처 창업·성장 및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발맞춰, 여성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양기관은 ▲여성벤처·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동반상생 프로그램 발굴 및 ESG 역량 강화 ▲에너지 기술혁신 및 신사업

창출 ▲여성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여성벤처의 안착을 돕기 위해 사업비 지원, 실증장소 제공, 사업화 연계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또 발전 관련 정보와 미활용 특허, 협력기관 네트워크 등 보유 자원을 개방해 혁신기술 공동 R&D와 발전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창출에도 나선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여성벤처기업은 잠재력은 높지만 자금·판로·네트워크 부족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국가 벤처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에센 융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2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3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4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5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6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7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8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9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0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1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12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13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14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 개막

글로벌 배터리 기업·기관 집결… 지속가능 미래 생태계 모색

이강덕 포항시장 등 500여명 참석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부스 운영
“포항, 세계 배터리 산업 허브 육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International Battery Expo 2025 Pohang)’이 지난 3일 포스텍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북 최초의 글로벌 배터리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경북포항이차전지산업기업협의회, 노르딕 무역투자대표부가 후원했다.

개막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휘·이만희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정병준 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를 비롯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이 포스텍 대학체육관에서 3일 개막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휘·이만희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정병준 에너지머티리얼즈(주) 대표 등 산학연관 관계자가 개막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포항시

해 산·학·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CTO,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등 국내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엑스포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독일·노르웨이·스웨덴 등 주요 기술협력국 관계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기원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김제영 LG

에너지솔루션 CTO가 ‘혁신을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을 주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메인 행사장인 포스텍 대학체육관 전시장에는 ▲특별전시존 ▲소재·부품존 ▲장비존 ▲기술·사업화존 ▲자원순환존 ▲서비스존 ▲산학협력존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기업·학교·연구소 등 36개 기관이 7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별전시존에서는 포항을 대

표하는 앵커기업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각각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역량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엑스포는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제시하는 글로벌 산업 교류의 장으로, 포항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목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전남)=이태호 기자 eoqh7505@

대구시

8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팔 걷어

대구시는 3일부터 이틀간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2025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9개국 16개 해외바이어(의료기관·의료관광업체·온라인 플랫폼 등)와 대구를 대표하는 37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이 참가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일본 대표 미용·의료 플랫폼, 카자흐스탄·베트남·몽골 등 업체, 대구지역 병원, 지역 유치 사업자 등이 일대일 상담과 의료기관 및 웰니스 캠퍼터를 실시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영덕군

7일~9일 ‘물가자미축제’ 진행

영덕 가을바다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수산물 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제19회 영덕 물가자미축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영덕 축산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영덕군이 주최하는 이번 물가자미축제는 단순한 수산물 소비 행사를 넘어, 체험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여촌문화형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축제 현장에 대형 솟불 그림이 설치된 ‘씨푸드 그릴존(Seafood Grill Zone)’이 운영돼, 관람객들이 신선한 물가자미와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산시, ‘AI 수도’ 경쟁력 알린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
‘AI 수도 울산 주제’ 전시관 운영

울산시(시장 김두겸·사진)는 국내 최대 지역 정책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일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구호(슬로건)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행사는 19일 오후 2시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28개의 정책·학술회의(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울산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을 주제로 산업수도에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상(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고,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등을 선보인다. 팔도 미식회, 팬상품(굿즈) 전시와 울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울산의 산업·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산업현장 여행(투어)과 문화관광 여행(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울산 특색을 담은 체험·판매 행사,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푸드)트럭 등 울산 이야기(스토리)마당과 축구, 농구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울산 스포츠 도전(챌린지)’ 등도 마련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내달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내달 1일~5일, 벅스코에서 진행

부산시는 전 세계 도핑방지 정책을 논의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며,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벅스코에서 진행된다.

총회에는 전 세계 191개국 도핑방지 관계자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내외 스포츠계의 관심이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위틀드 반카 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이 참



세계도핑방지기구 홍보 영상. /부산시

석한다. 특히 코번트리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사전 홍보영상 송출과 개회식 당일 현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는 이날부터 양기관의 공식 캐릭터 ‘부기’와 ‘톤톤’이 함께하는 유튜브 홍보영상을 각 기관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경북형 글로벌 대학’ 사업 공모

내달 5일 17시까지 신청 접수

경북도는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도의 7대 전략산업 방향과 연계한 ‘경북형 글로벌대학’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100년대학육성(K-IVY) 프로젝트’의 단위과제로 기획됐으며, 정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앞당겨 시행된다.

‘경북형 글로벌대학’은 총 2개 분야,

3개 트랙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중심 글로벌대학’ 1개교와 ‘경북 전략산업 글로벌대학’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내달 5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50억 원씩, 최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의 특화 역량을 중심으로 AI 및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대학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신보, ‘2024년 보증사업 평가’ 1위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24년 보증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지역신보 가운데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부산신보는 이번 평가로 연간 약 66억 8000만원의 재정 효과를 거뒀다.

중기부의 지역신보보증사업 평가는 지역신보의 연간 보증 운용 실적을 평가해 신용보증의 질적 향상과 계획적 보증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재단은 역대 최대 출연금 687억원 확보, 총보증 공급 누적 100만 건 달성,

전국 최저 보증료를 운용, 17개 지역신보 중 신규 보증 및 사고 관리 생산성 최상위 수준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차 보전 RPA 도입, 역대 최대 이차 보전 자금 지원, 고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업점 2곳 신설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2024년 보증사업 평가’를 통해 재단은 보증잔액 3조 500억원 기준, 최하위 지역신보 대비 연간 재보증료를 32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유통업계, 식품사업 구조 붕괴 우려… “산업 현실 반영해야”

정부 새벽배송 제한 검토

규제 현실화시 기존 유통망 한계
상품 기획 등 전략 재수립 불가피
“단순한 배송시간의 문제 아냐”

정부가 새벽배송 제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식품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채널에 의존해온 기업들이 물류·판매 구조 전반의 재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배송 서비스가 아니라 신선식품 유통의 근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은 그간 냉장·신선식품 중심 브랜드의 핵심 판매 창구로 자리해왔다.

마켓컬리, SSG닷컴, 쿠팡 등 새벽배

송 플랫폼을 통해 CJ제일제당, 풀무원, 대상, hy(한국야쿠르트) 등 주요 식품 기업이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해왔다.

업계 전반에서 온라인 채널 매출은 두 자릿수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4년 2분기 기준 국내 가공식품 부문 온라인 매출 비중이 약 19%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약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풀무원 역시 2021년 기준 풀무원식품 계열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약 16.8%로 당시 전체 매출의 6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망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식품기업이 온라인 전용 상품이나 자사몰 판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식품기업들은 최근 온라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선식품 거래액이 확대되면서, 각사는 전용 상품 출시와 물류 확보,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배송시간 제한이나 심야유통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이 같은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냉장식품은 출고 타이밍 하나로 품질이 좌우되는데, 배송시간이 지연되면 신선도 관리가 어렵다”며 “결국 물류비 상승과 폐기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위축은 식품기업들의 제품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신선식품보다는 상온·레토르트형 제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택배노조 파업 때도 즉석죽, 레토르트 카레 같은 상온형 제품의 주문 비중이 늘었다”며 “새벽배송 제한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이 아예 상품 기획 단계부터 구조를 달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시 구매와 신선식품 수요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통 대기업 계열 식품사들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오프라인 재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선도를, 기업은 속도를 원한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단순한 배송 시간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식품 유통 산업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화점 디저트살롱 ‘서울미식주간 100선’ 선정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이 서울시 주관 ‘2025년 서울미식주간 100선’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 전통 다과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시도를 공인받은 것이다.

지난 4월 본점 ‘더 헤리티지’ 5층에 문을 연 디저트살롱은 신세계백화점 한식 연구소가 전문가들과 협업해 기획한 공간으로, ‘현대적 다과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은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홍시, 햇밤 등을 활용한 계절 다과상을 한정 운영한다. 홍시운무, 석탄병, 밤강정, 유자인절미, 모과정과 등 5가지로 구성된다. 팔죽 등 시즌 한정 메뉴와 함께,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는 수험생을 위한 참쌀떡도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제일제당, ‘햇반 라이스플랜’ 라인업 확장

볶음밥·주먹밥·죽 등 7종 선보
“소비자의 저속라이프 실천 지원”

CJ제일제당이 ‘햇반 라이스플랜’의 라인업을 확장하며 저속라이프 열풍에 앞장선다.

CJ제일제당이 ‘햇반 라이스플랜’ 볶음밥·주먹밥·죽 신제품 총 7종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출시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햇반 라이스플랜’의 누적판매량이 1000만개를 돌파하는 등 저속식단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CJ제일제당은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햇반 라이스플랜’ 볶음밥·주먹밥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냉동 라이스플랜 제품이다. 모두 정회원 박사의 저속식단 레시피를 활용했으며, CJ제일제당 햇반이 30년 가까이 쌓아온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파로·현미·귀리 등 다양한 잡곡의 맛을 끌어올려 맛과 영양을 한번에 잡았다.

볶음밥 제품은 ‘햇반 닭가슴살 현미



햇반 라이스플랜 제품.

/CJ제일제당

귀리 김치볶음밥·갈릭볶음밥’, 주먹밥 제품은 ‘햇반 파로곤약 닭갈비 주먹밥·청양고추 주먹밥’으로 각각 2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신제품 모두 다양한 잡곡들과 닭가슴살이 들어있는 고단백 제품으로 맛있고 간단하게 식단관리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죽 제품도 선보인다. ‘파로녹두닭죽’·‘귀리 소고기죽’·‘파로통곡물죽’ 3가지 종류로, 파우치 형태와 플라스틱 용기형태 2가지로 출시됐다. ‘파로녹두닭죽’·‘귀리

소고기죽’은 통곡물과 닭고기·소고기를 최적으로 배합해 깊은 맛을 더하고 영양까지 잡았다. ‘파로통곡물죽’은 한 그릇(420g)에 바나나 약 4.9개 분량의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고식이섬유 제품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모든 식사를 저속식단으로 하고자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저속라이프 제품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햇반 라이스플랜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속라이프를 실천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강원도 홍천군 일품진로쌀 재배지.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증류주 특화 쌀 품종 개발

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의 발효 특성과 향미 구현에 최적화된 쌀 품종을 선정, 시험재배까지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재배된 품종 ‘주향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하이트진로와 함께 양조 특성을 평가하여 증류식 소주 제조에 특화된 전용쌀로 선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일품진로쌀’로 상표 출원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의 원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증류식 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한, 국내 쌀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도 지속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이너웨어 페스티벌’ 진행

홈플러스가 가성비, 집콕 트렌드로 이너웨어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고객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이너웨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심리스 이너웨어, 남성 언더웨어, 마이핏플러스 이너웨어, 파자마 등 다양한 상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주말특가로 ‘카카오 성인 이지웨어’를 50% 할인가에, ‘이동 캐릭터 팬티·드레스’, ‘비비안·트라이엄프 여성 팬티’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현대그린푸드, ‘고령친화식품’ 분야 두각

정부 지정제품 16종… 업계 최대

현대백화점그룹의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고령자를 위한 전문 식품인 ‘고령친화우수식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지정 제품만 16종으로, 국내 전체(85종)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며 업계 최대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노인의 치아 상태나 소화 기능에 맞춰 단단함(물성)과 영양을 조절한 제품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지정한다. 현대그린푸드는 1단계(치아로 섭취)부터 3단계(혀로 섭취)까지 전 단계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특히 생선이 까다로운 2단계(잇몸으로 섭취 가능한) 제품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 지정된 2단계 제품 8종 가운데 7종이 현대그린푸드 제품이다. ‘더 부드러운 함박스테이크’, ‘소고기장조림’ 등 육류 제품을 잇몸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제조한 것이 회사뿐이다.

이 같은 경쟁력의 기반은 2020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케어푸드 전용 ‘스마트 푸드센터’다. 이곳에는 ‘포화중기오븐’과 ‘터널프라이어’ 등 연화식 전문 조리·급속냉동 설비가 갖춰져 있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며 식감과 맛을 유지한다.

현대그린푸드는 병원·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력도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와 함께 수행한 농식품부 과제가 ‘사회문제해결 우수 R&D 사례’로 선정됐으며, 자체 연구 논문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에게 재되기도 했다.

회사는 올해 업계 최초로 도시락형 고령친화우수식품 출시도 추진 중이다. 밥·국·반찬이 한 세트 구성된 형태로, 모든 구성품이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제품 수를 3년 내 3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고령친화식품은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고령층의 건강을 위한 필수 영역”이라며 “연령과 라이프스타일별 맞춤형 식품으로 케어푸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슈퍼 ‘뽕규절’ 2주차 행사

롯데마트·슈퍼가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뽕규절’ 2주차를 이달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1주차 반값 한우, 김크림 등의 인기에 힘입어 2주차에도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이번 2주차 대표 상품은 창사 이래 최초로 진행되는 냉장 연어 전 품목 50% 할인이다. 행사 카드 결제 시 ‘SUPER 생연어’를 2025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며, 칠레 지정 양식장에서 항공 직송한 ‘파타고니아 항공직송 연어 대용량’도 반값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주말 특가 신선 과일도 준비했다. 이달 9일까지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 전품목’을 할인가에, ‘칠레산 블루베리’는 2팩 이상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맥도날드 ‘그리머스 패딩백’ 한정판매

맥도날드가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Grimace)’를 활용한 ‘그리머스 패딩백(사진)’을 오는 11월 6일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올해로 탄생 55주년을 맞은 그리머스는 보라색 털과 짧은 뚱뚱한 팔다리를 가진 맥도날드의 대표 마스코트로 밀크셰이크와 생일 파티를 좋아한다는 유쾌한 설정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그리머스 패딩백은 그리머스 셰이크 메뉴의 재출시를 기념하는 한편 캐릭터 자체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폭신한 패딩 소재의 가벼운 착용감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신원선 기자



올해 세번째 ‘K-신약’ 탄생… 신속 품목허가에 속도 붙는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새로 제정한 지침 적용 첫 사례

큐로셀, 림카토주 품목허가 신청
기존보다 빠른 일정 발매 기대

올해 들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신약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K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GC녹십자의 탄저 백신 ‘베리트라스주’, 9월 메디톡스의 지방분해주 사제 ‘뉴비주’ 등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국산 신약이 탄생했다. 업계에서는 신속 승인 제도와 혁신 신약 상용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제41호 국산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됐다.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제품 발매까지 독자 성공한 제품이다. 뇌에서 흥분성 신호를



큐로셀 연구원이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큐로셀

전달하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반복적인 신경세포 발화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세노바메이트는 이미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2020년 2분기 첫 출시부터 올해 2분기까지 매분기 연속으로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노바메이트 처방이 불가능해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함 해소, 국내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결 등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촉구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노바메이트의 국

산 신약 허가는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다. 해당 지침은 신속한 신약 허가에 중점을 둔다.

실제로 식약처는 21명 규모의 신약 허가 전문 품목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임상시험관리 기준(GCP)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승인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도입하고 품목허가 신청 전후 8회의 맞춤형 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등 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세노바메이트의 경우, 올해 2월 동아에스티가 품목허가를 신청한지 약9개월

만인 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42호 국산 신약의 빠른 탄생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림카토주(성분명: 안발셀)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큐로셀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림카토주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림카토 약가에 대한 전반의 절차가 식약처의 허가과 동시에 완료돼 기존보다 빠른 일정으로 발매될 수 있다.

큐로셀은 올해 안발셀 품목허가를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완료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첫 CAR-T 치료제 상용화 등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응증은 재발성 및 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이 치료제는 말기 혈액암 환자들에게 쓰인다.

큐로셀 측은 “림카토주가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차세대 CAR-T 치료제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미 위암, 폐암 등에서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항체 신약 기업 애플론도 경

쟁 대열에 합류했다.

애플론의 CAR-T 치료제 후보물질 ‘네스페셀’이 지난 7월 식약처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대상 지정을 신청하고 약 2개월 만인 9월에 지정되면서다. 이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식약처의 신속처리대상 지정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애플론은 전담 심사팀 배정, 심사기간 단축, 임상시험 자료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품목허가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네스페셀은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를 위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애플론이 자체 개발한 CD19 특이적 인간화 항체 ‘H1218’을 적용해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신약개발 시장에서 혁신 기술은 물론, 신속한 인허가 제도적 지원도 경쟁력 강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규제기관의 속도에 발맞춰 기업의 R&D 투자나 연구개발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새로운 ‘젤리캣’ 인형과 특별한 우주여행 떠나요”

젤리캣, 韓 공식 진출

오늘부터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韓 론칭 기념 젤리 신규 라인 선보여
특별한 스토리·몰입형 경험 제공

“축하드립니다. 젤리캣스페이스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셔틀을 타고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마련된 ‘젤리캣스페이스 HQ.’ 우주복을 입은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미션 티켓과 목걸이를 받고 셔틀에 탑승했다. 창에는 우주 공간이 펼쳐지고 ‘정체불명의 젤리 생명체가 포착됐다’는 긴급 미션이 내려지며 마치 진짜 우주를 탐험하는 몰입형 경험이 시작된다.

영국 럭셔리 소프트 토이 브랜드 젤리캣(Jellycat)이 이달 5일 한국 시장 공식 진출을 알리며 전 세계 최초 체험형 팝



우주처럼 꾸며진 공간을 통해 체험형 공간처럼 팝업스토어를 체험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업스토어 ‘젤리캣스페이스(Jellycat Space)’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1999년 런던에서 탄생해 25년 넘게 ‘기쁨을 나누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온 젤리캣이 한국팬들을 위해 특별한 몰입형 우주여행을 설계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방문객이 스페이스 요원이 되어 우주선에 탑승하고, 휴

면 캡슐 속 신규 캐릭터를 발견하는 등 젤리캣 특유의 상상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젤리캣스페이스 본부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던 새로운 젤리들을 만날 수 있다. 젤리캣의 한국 론칭을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젤리들이다. 질럿 에일리언, 젤리소서, 스페이스 코멧, 플

래닛 마스 등 다양한 캐릭터가 함께 찾아왔다. 팝업스토어 안에선 해당 인형들을 키오스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가 지원되는 것도 특징이다.

젤리캣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도 론칭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인다”며 “중국에서는 찻집을 모티브로, 프랑스에서는 베이커리를 테마로 한 것처럼 한국에선 스페이스 테마로 신규 라인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1층에 마련된 라운지에선 낱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수를 받을 수 있다. 마스 오빗, 네블라 팝 피자, 레드 플래닛 펀치, 그린 코멧 말차까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료가 준비돼 있다. 케이터링 공간에선 알록달록한 케이크팝과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

미션을 수행하며 이동한 2층 굿즈샵 ‘2075 AD 제네럴 스토어(General Store)’에는 신규 라인업 외에도 젤리캣의 시

그니처 컬렉션이 총출동했다. 젤리캣의 마스코트 격인 고양이 캐릭터 ‘잭(Jack)’을 비롯해, ‘러버블스(Loveables)’의 대표 주자인 ‘바시풀 버니’와 ‘바톨로뮤 베어’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젤리캣은 단순한 인형 판매를 넘어, 런던의 ‘피시앤칩스’나 뉴욕의 ‘다이너’처럼 도시별 유니크한 스토리와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젤리캣스페이스 역시 요원 선발, 기쁨 수치 측정, 기프트 토큰 제공, 우주 테마의 케이터링(초콜릿, 케이크 팝) 등 방문객이 하나의 스토리를 따라 이동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젤리캣 관계자는 “젤리캣은 단순한 소프트 토이를 넘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즐거움’을 전달하는 브랜드”라며 “이번 팝업을 통해 젤리캣만의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젤리캣스페이스 팝업스토어는 이달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엠엔지)에서 운영된다. 입장은 젤리캣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 또는 현장 대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아모레퍼시픽 ‘헤라’, 홀리데이 한정판

쿠션, 블러쉬 스틱, 팔레트 등 구성

아모레퍼시픽은 컨템포러리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2025 홀리데이’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재즈 선율과 서울의 낭만이 어우러진 ‘올댓클럽’을 주제로 절제된 화려함과 세련된 분위기를 구현했다.

리미티드 홀리데이 쿠션 케이스 2종

은 제품 디자인에 이탈리아인 소가죽의 고급스러움을 담았고 헤라 대표 제품인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모두에 호환 가능해 소장 가치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이와 함께 5가지 블러쉬 스틱과 4가지 색을 한 데 조합한 눈화장 전용 팔레트, 입술 제품 쉐슈얼 누드 글로스 2종 등으로 다채로운 연말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헤라 ‘2025 홀리데이’ 한정판

/아모레퍼시픽

있다. 퍼퓸드 핸드크림 트리오는 3가지 다른 향으로 뷰티 경험을 확대해 준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항체신약 후보물질 2종 확보

美 바이오텍 카이진과 라이선스 계약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텍 카이진과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 기반 신약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카이진의 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KG006의 중국, 일본을 제외한 독점적인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

를, KG002의 전 세계 독점적인 글로벌 개발, 생산 및 판매 권리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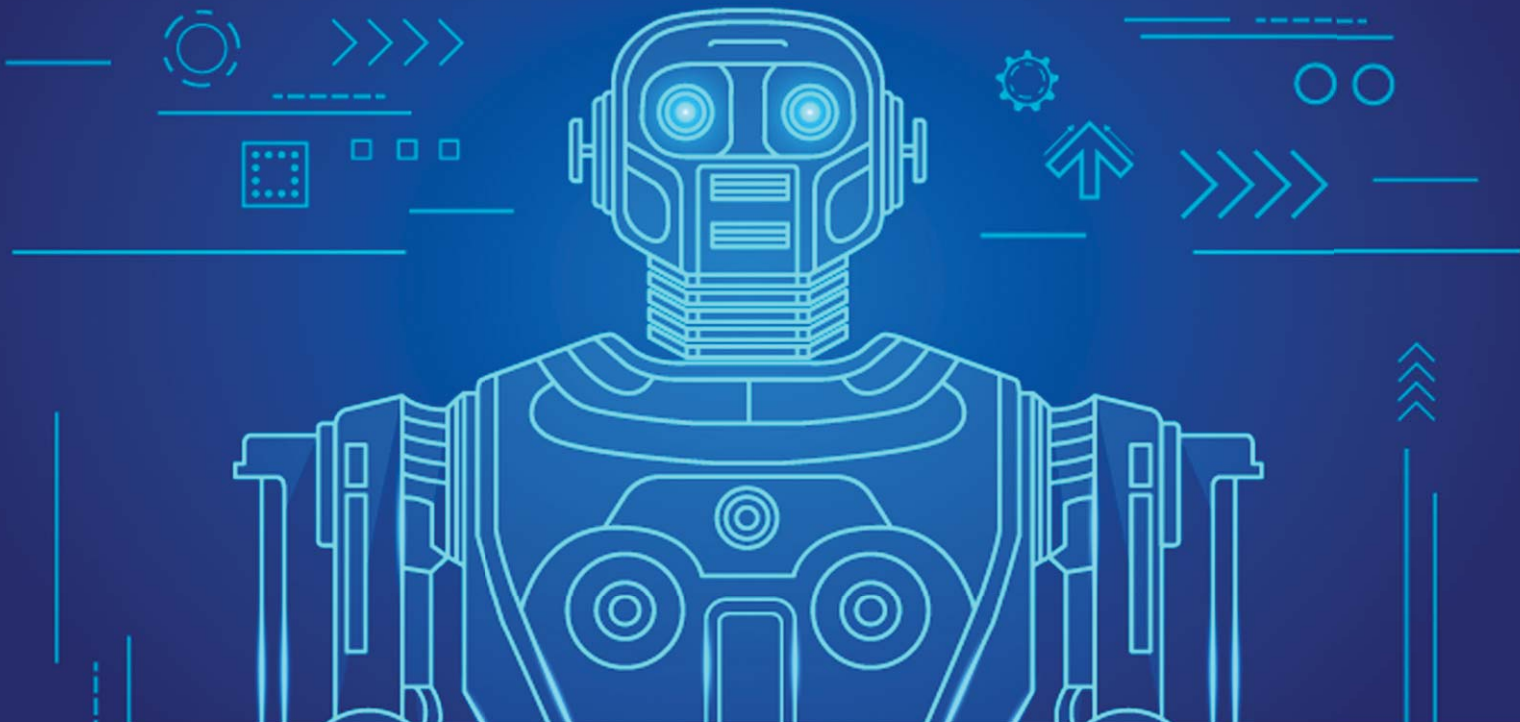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조620억원으로 선금금은 약 114억원이며 개발 마일스톤은 최대 약 1584억원, 판매 마일스톤은 최대 약 8921억원(순매출 5조7096억원 달성 시)에 달한다. 제품 상업화에 성공하는 경우, 로열티는 순매출액의 5~10%를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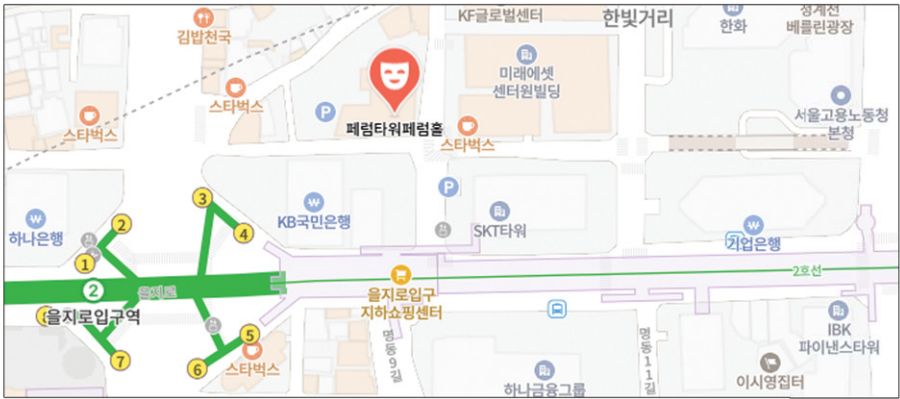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해민 국회의원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피지컬AI협회장
강연	14:50~15:20	고태봉 iM증권 본부장
	15:20~15:5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15:50~16:2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16:20~16:50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블록체인 유공 단체부문 수상

NH농협은행은 블록체인 분야 기술개발과 확산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2025년도 블록체인 유공 단체부문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최운재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여경협, 여성기업 성장 지원 '맞손'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어여성경제인 협회와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왼쪽 두번째)과 박창숙 한국어여성경제인협회장(오른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 꿀벌 생태계 회복 기부 행사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가든에서 '꿀벌 생태계 회복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보는 밀원식물과 식물 보호 물품을 구매해 한수정에 기부하고, 직원들과 함께 식재 및 멀칭 작업을 진행했다. 천창호 기보 이사(왼쪽 두번째),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제너시스BBQ그룹, 한 달간 치킨 1000마리 나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패밀리(가맹점주)와 함께하는 치킨 릴레이를 통해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과 기관에 치킨 1000마리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치킨 릴레이는 2017년부터 이어온 BBQ의 대표 상생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본사가 신선육을 지원하고 패밀리는 재능기부 형태로 직접 조리해 전달한다. /제너시스 BBQ



삼성전기, '2025 안전환경 워크숍' 개최

삼성전기는 협력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안전환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에서 열렸으며, 1·2차 협력사 대표 및 안전환경 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기

LG전자, 텀블러 사용문화 활성화 '앞장'

경기도 21개 대학에 마이컵 설치
기업·관공서 등 빠르게 공급 확대

LG전자가 신개념 텀블러 세척기 'LG 마이컵'을 경기도 21개 대학교에 설치해 YG(Young Generation)고객 대상으로 제품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와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텀블러 사용문화 활성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환경보호 등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YG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내 21개 대학교에 마이컵을 설치, 12만여 명의 재학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편리하게 자신의 컵을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컵에는 LG전자가 지금까지 축적한 식기세척기 기술 노하우가



적용됐다. 360°로 회전하는 세척 날개와 65°C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씻어 세척력이 뛰

/LG전자

어나다. 마이컵은 글로벌 인증시험기관 'T UV 라인란드(Rheinland)'로부터 표준 코스 진행 후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3종이 99,999% 제거되는 것으로 검증 받았다.

어났다.

마이컵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B2B(기업 간 거래) 고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내 2000여 개 스타벅스 매장에 마이컵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업 사옥, 관공서 등으로도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마이컵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업 사옥, 관공서 등으로도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G전자 이향은 HSCX담당은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으로 환경보호 등 가치 소비에 관심이 많은 YG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아시아나, 내년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이전 운항

통합항공사 출범 앞두고 효율성 개선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터미널 이전은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조치로 공항운영효율 및 승객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내년 1월 14일 00시를 기준으로 모든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은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 및 도착한다. 탑

승수속은 G~J카운터에서 이뤄지며, 그 중 J열은 비즈니스클래스 및 우수회원 전용 카운터가 위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 관련 대고객 안내를 강화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인천공항 내 주요 위치에 안내 배너를 설치해 고객 안내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14일부터 탑승하는

고객 대상 전자항공권 여정 안내서(E-TICKET)에 터미널 정보가 변경 적용되며, 알람독을 통해 개별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홍보와 고객 안내를 지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제2여객터미널에서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카카오, '2026 점자달력' 8000부 배포

일부 판매... 수익 전액 기부

카카오는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2026 카카오 점자달력'을 제작하고,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총 8000부를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 향상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한 상생 프로젝트다. 작년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올해는 제작 수량을 167% 늘렸으며, 배포 대상도 학생 중심에서 성인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주요 배포처는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2200부)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5200부)이며, 비장애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카카오메이커스에서 600부가 판매된다. 판매 수익



2026 카카오 점자달력 배포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전액은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에 기부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GS리테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유통 대기업 유일 2년 연속 최우수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홈쇼핑 GS샵이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유통 대기업 중 유일하게 대기업 기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으로, 업계 내 모범적인 상생경영 체계를 입증했다.

GS25는 2016년 신설된 가맹점 부문에서 편의점 업계 최초로 우수 등

급을 수상한 이후, 2019년 유통업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후 올해까지 총 네 차례 최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가맹 경영주와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해왔다.

GS샵은 협력사 ESG 경영 실천 및 공정거래 기반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홈쇼핑업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GS리테일 확장지속가능경영부 문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소진공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호·사진)이 본부 및 지역 조직을 대상으로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4일 소진공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해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이행하는 제도다.

평가에선 본부 24개와 전국 90개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실천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본부에서는 시장경영지원실이, 지역조직에서는 강원지역본부, 양산센터, 경남지역본부가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성호 이사장은 "최근 철도 선로 사고, 굴뚝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평가 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필립모리스 '쓰담서울 시즌5' 마무리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환경재단과 함께 서울 연남동 일대에서 도심 환경 캠페인 '쓰담서울 시즌5 해피쓰담데이(이하 쓰담서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쓰레기 없는 할로윈'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시민과 한국필립모리스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플로깅 활동에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축제형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이틀간 약 54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남동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며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국내 대표 일러스트 작가 '키크니'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적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키크니 특유의 감성과 위트를 담은 캐릭터와 포스터, 버스 디자인은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참가자들은 키크니 스티커로 '쓰담 다이어리'를 꾸미는 체험을 통해 환경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팝업 부스 구간을 체험한 참가자에게는 '해피쓰담데이 X 키크니' 한정 굿즈가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박애순씨 별세, 김덕천(호남일보 회장)씨 모친상=4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062-606-4000

▲우재욱씨 별세, 우동윤(KBS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지영(윙크 마케팅 기획팀 차장)·지영·은영씨 부친상 = 4일, 대구 상례원 전문장례식장 3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053-952-4000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꼭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021, 나무옆의자)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 ticket | 공연문의 02-332-4902

SONY의 변신은 무죄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SONY는 많은 사람에게 왠지 낯설지가 않은 이름이다. SONY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 동경의 한 백화점 건물 안 전자제품 상점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일본 재벌이 아닌 신생 기업으로 일본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를 생산하였고, 1955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생산해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후 미국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SONY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일본의 전기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활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일본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라 일본에서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SONY의 이미지가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SONY가 유명해진 것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덕분인데, 그보다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69년 등장한 ‘Walkman’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개인 오디오 시장에 혁신을 가져왔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SONY의 전자제품은 혁신의 상징이었고 1980년대 CD 플레이어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등 음향과 영상 등 미디어 부문에 있어서 세계 모든 기업이 SONY를 모방할 정도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SONY는 전자제품 특히, 오디오 기기를 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게임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닌텐도의 패미컴이 가정용 게임기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향과 영상 부문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SONY는 게임기 시장에서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왔다. 뛰어난 그래픽과 우수한 음향효과는 게임 마니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고 SONY 그룹의 핵심 축으로 게임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 1994년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게임 콘솔인 PlayStation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시리즈로 판매되었고 지금은 PlayStation5가 주력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게임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세대에게 SONY는 게임 콘솔과 우수한 그래픽의 게임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SONY는 음향과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면서 직접 미국의 음반사인 CBS Records(1988)와 영화사인 Columbia Pictures Entertainment (1989)를 인수했다. 음향기기 제조뿐만 아니라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기기 등 하드웨어를 생산하던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SONY다. 일명 케데몬은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전의 SONY를 모르기에 SONY를 영화 제작사 혹은 배급사로 알고 있다.

더욱 놀라운 SONY의 변신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니의 이미지센서는 디지털카메라 제조 시설에 축적되어 현재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Honda와 공동으로 전기차 생산 기업인 Sony Honda Mobility Inc.를 설립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SONY는 전기자동차 회사로 알려질지도 모르겠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종이빨대, 소비자는 불편·기업은 파산



김 지 수 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솔직히 말해서 기자인 나도 종이빨대가 싫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눅눅하게 흐물거리고, 몇 번 빨다 보면 빨대가 찢어진다. 음료는 한참 남았는데, 빨대는 이미 수명을 다 한듯 종이 낱새와 뒤섞인 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 불편하다. 많은 소비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종이빨대 업계 사람들의 표정은 불편함보다 절박함에 가까웠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이라 불렸다. 종이빨대 업체들은 그 길을 밟고 따라나섰지만 도착한 곳은 ‘파산 위기’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의 최광현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부채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축소·폐지됐다. 정책을 믿고 투자한 업체들만 남았다. 최 대표는 “정부 정책 철회로 직원이 40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었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정부를 믿은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현재 17곳이 었지만, 지금은 6곳만 남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이미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한때 ‘탈플라스틱’을 외치며 기업들에게 친환경 전환을 독려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종이빨대 정책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소비자 불만을 의식한 결과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종이빨대의 불편함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 제품 완성도는 아직 낮고, 가격은 비싸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개발은 시장이 지속 가능해야 가능하다. 정책이 바뀌고 수요가 끊기면, 누가 돈과 시간을 들여 개선하겠는가.

지금의 종이빨대는 불편하고 미완성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미완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16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늘 전화위복이 있는 것도 인생. 48년생 상대방의 나쁜 계락을 미리 알고 대처. 60년생 하상을 통해서라도 이성에게 과시하고 싶다. 72년생 마음이 한결같으면 어떤 일도 해낸다. 84년생 내 처지가 초라해도 한탄하지 말자.



소

37년생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마구 행동하면 본인 발등만. 49년생 처음부터 가질 게 없고 기대할 게 없다. 61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73년생 언제나 일인당백(一人當百)을 한다. 85년생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는 부모님 지혜.



호랑이

38년생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50년생 돈 문제로 이혼 위기. 62년생 결심이 사할 못 같다. 74년생 봄날 달밤은 천국의 값어치가 있다네. 86년생 고학력임에도 생활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불성실의 결과일 것.



토끼

39년생 입과 입을 청결하면 해도 좋은 기를 받는다. 51년생 아간 음주는 종일 하루를 힘들게 한다. 63년생 낮에는 일하고 밤사이엔 공부한다. 75년생 뛰어난 작품이 드디어 태어난다. 87년생 행운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데.



양

40년생 자두연기(煮豆燃箕)라 서글프다. 52년생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운기를 좋게 만들어보라. 64년생 연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76년생 은역을 입으면 보답을 해야 내 도리. 88년생 義의 기운이니 멀리 있는 길에서 운전조심.



뱀

41년생 내가 한 일은 내가 받는다. 53년생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외출은 삼가. 65년생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으나 손재로 이어질 수 있다. 77년생 꽃에는 향기가 있고 달빛은 아름답게 비추네. 89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절박하다.



말

42년생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니 말조심. 54년생 얼굴빛이 어두우니 음식도 조심해서 먹도록. 66년생 개미구멍이 점점 커져 마침내 큰 독이 무너진다. 78년생 웃는 것은 천국의 가치가 있다네. 90년생 현재 상황에 따라 움직이도록.



양

43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먼저 사도록. 55년생 정신을 한곳에 모아보라. 67년생 직원 중에 도둑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흘러들 한다. 79년생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듯 답답하지만 헤쳐나간다. 91년생 초저녁 음주는 조심.



원숭이

44년생 얌전한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전전긍긍. 56년생 수성(水性)이라 예능적 기운이 탁월. 68년생 화장이 짙어지는 일진. 80년생 한 가지 일을 보고 내일 할 일이 짐작이 간다. 92년생 순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약속하지 말자.



닭

45년생 집안 문제는 오전에 슬프고 이른 오후에 기쁨이 있다. 57년생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 69년생 내 능력은 새 발의 피로 적지만 발전적. 81년생 3가지 소식을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 93년생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유지.



개

46년생 앞의 실수를 슬퍼하지 말고 재조명하는 거울로 삼라. 58년생 스승은 인품이 나 글이 아름다우니 존경. 70년생 정서 교육도 중요시. 82년생 한바탕의 꿈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니 공부하자. 94년생 오늘 귀인은 전생애 이미 맺은 인연.



돼지

47년생 사업의 장구한 이익을 위해 신용을. 59년생 남의 단점을 바라보듯이 나의 단점도 찾아. 71년생 이사는 다음 날로 결정해야. 83년생 귀인을 만나고 보니 옛날 지인. 95년생 예수님은 오손이 한 일을 원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김상회의四季

부처추신

부처추신釜底抽薪은 가마솥 밑의 장작을 뽑아내는 계책이다. 아궁이에 불길이 사라지면 솥에 담긴 내용물은 더는 요동치지 않는다. 이는 근본을 차단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원인을 제거해서 국면을 바꾸는 방법이다. 중국 병법 36계의 열아홉 번째 계책인 부처추신은 인간의 인생과 운명의 이해, 그리고 병리학의 사유에도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다. 사주의 오행은 상생과 상극의 법칙으로 얽혀 있으며, 그 조화가 깨질 때 불균형과 갈등이 생기는데 이 불균형을 다루는 방식과 비슷하다. 겉으로 드러난 불운을 탓하기보다, 근본을 파악하고 만약 빈번하게 재물의 손실이 생긴다면 단순히 재물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주에서 재성을 갇아먹는 인성이나 관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지, 오행의 흐름에서 무엇이 불균형을 일으키는지 살펴서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 성격을 탓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단순히 돈을 더 벌 방법만 찾는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지를 보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오행과 심성의 조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돈이 모이지 않으면 허세 부리는 습관이나 재성이 지나쳐 탐욕에 휘말린 사주는 재물을 줄이고 印星을 기르면 안정이 찾아온다. 관성이 지나쳐 압박이 심한 사주는 관의 기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꾸면 삶이 가벼워진다. 운명 속의 불균형을 찾아 조율하는 부처추신 계책은 이 지혜와 맞닿아 있다. 불운이 닥쳐도 원인을 파악하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 막만 찾는다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니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3650

결란스도쿠110

중하스도쿠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인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1	8	7	9	5	8
9	7	8	9	2	6	2	1
9	2	8	1	8	9	7	2
2	8	9	2	9	1	8	6
8	9	6	7	9	8	1	2
2	1	7	6	8	9	9	2
1	8	2	9	7	6	8	9
7	6	2	8	1	9	2	8
8	9	9	6	2	2	8	7

8	7	1	9	2	9	6	8
8	2	9	8	1	6	2	9
9	6	2	2	8	7	1	8
2	8	6	9	2	1	7	9
9	9	2	7	8	2	8	1
1	8	7	6	9	9	2	8
7	1	8	2	9	8	9	6
6	9	9	8	7	2	8	1
2	2	8	1	6	8	9	7

서부트럭터미널, 46년 만에 탈바꿈 첨단물류-생활 연결한 랜드마크로

서울 양천구 ‘첨단물류단지’ 조성
1.9조 투입, 2030년 하반기 준공
창업센터, 체육센터, 주거시설 등
생활 인프라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1979년 준공 이후 46년 만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6개 시범사업지 중 첫 개발 사례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는 10만4000㎡ 규모로, 연면적 79만 1000㎡에 달한다.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 도시형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곳을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닌 지역 생활인프라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동차 분류 기능을 갖춘 첨단 ICT 기반의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을 도입해 상품의 입고·분류·배송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선식품 보관·포장·가공 등을 수행하는 콜드체인 시설과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를 함께 조성해 물류 효율을 극대화한다. 기존 트럭터미널의 기능은 지하층으로 이동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사업지는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



오세훈(왼쪽 네 번째부터)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열린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주변 도로도 확장(1~3차로)하고, 오리로 복단 단절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높인다.

첨단물류단지 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창업기업 입주공간, 창업상담·지원실, 회의공간, 휴게공간, 강당 등으로 구성된 창업지원센터(5421㎡)를 조성해 청년창업과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 수영장, 피트니스룸, 스쿼시, 볼링장, 탁구장, 스카이트리, 실내테니스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1만7050㎡)를 신설해 주민 복지를 강화한다.

주거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공공임대 98세대를 포함한 총 997세대 규모의 도심형 주택을 공급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다.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행정절차 등 사업단계를 진행 중이며,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시30분 서부트럭터미널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물류를 책임져 왔지만 노후시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쳤던 서부트럭터미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창조를 통해 서남권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홈플러스 공대위·정치권, 정부 개입 요구

인수후보 2곳 ‘자격미달’ 논란
마트노조, 다시 철야농성 돌입
여야 의원들, 정부 책임 촉구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전단체 대책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에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31일 마감 전 복수 기업으로 부터 인수인양서(LOI)를 제출받았다. AI 유통 플랫폼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 업체 스노마드가 인수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자본금에 있어 부실해 인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유통업 경험이 없는 두 기업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 매출 5억원에 불과한 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과연 국내 2위 대형마트를 경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는 MBK의 ‘떡볶이 시나리오’를 위한 들러리 참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부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선량한 인수자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투기 자본에 홈플러스를 넘기는 것은 사회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 능력과 유통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도록 인가 전 M&A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해경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인수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2만명의 직 접고용 노동자와 8만명의 간접고용 인력, 8000여 입점업체, 1800여 납품업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홈플러스공대위 박석은 상임대표는 “이번 인수인양서 제출은 제2의 떡볶이 시나리오로, 아바위판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인천시 ‘제3연륙교’ 세계 최고 높이 인증

해발 184.2m 전망대, 랜드마크로

인천시에 건설중인 제3연륙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로 공식 인정받았다. 세계기록위원회(WRC)가 해발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를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인증하며 인천의 기술력과 도시경관이 세계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 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 부문 공식 인증을 받았다.

한국기록원(KRI)의 최고 기록 검증

을 거쳐 WRC의 심사를 통과한 결과, 제3연륙교 전망대가 전 세계 해상교량 전망대 가운데 해발 184.2m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영국 기네스 세계기록(GWR, Guinness World Records) 등재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연내 등재가 완료될 경우 제3연륙교는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천의 도시경관과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대표 상징물”이라며 “개통까지 완성도를 높여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수험생 66% 사교육 이용, 성적 높을수록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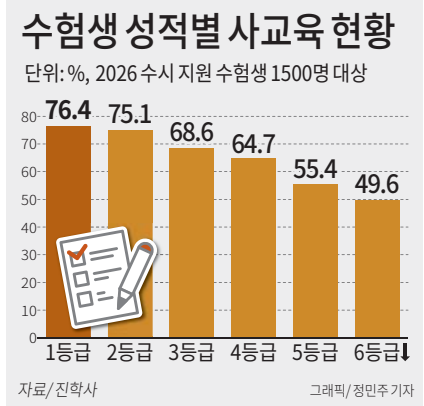
대학입시 준비, 사교육 영향력 여전히
수도권 71.3%, 비수도권보다 1.6배
내신 상위권 학생일수록 의존도 높아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 진학사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국 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가 학원·컨설팅 등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학생의 참여율은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6배 높았으며,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성적별 격차’도 뚜렷했다.

◆수도권 학생 71.3% “사교육 활용”

응답자의 65.6%가 수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을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일부 활용’은 48.1%, ‘적극 활용’은 17.5%로 조사됐다. 이는 절반 이상이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



은 부분(복수 응답)은 ‘성적 향상(내신·수능)’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학·전형 정보 제공(26.2%) ▲비교과 활동 관리(15.4%) ▲면접 대비(12.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이 단순한 성적보완을 넘어 학생부 관리와 대학별 고사 준비 등 수시 준비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1.1%p 높았다. 특히 ‘적극 활용’ 비율

은 수도권 21.7%, 비수도권 13.5%로 약 1.6배 차이를 보였다. 진학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학원가, 입시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교육도 성적순?”…상위권 적극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았다. 1등급대 학생의 76.4%, 2등급대의 75.1%가 사교육을 활용한 반면, 6등급 이하에서는 절반 수준(49.6%)에 그쳤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심화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필수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개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격차가 누적되면 단순한 성적 차이를 넘어 정보·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日 “납북자 귀환 노력”…北日회담 타진 경로는
말 아껴 /사진 뉴시스
▲美, 北석탄·철강 中 수출 관여 선박들 유엔 제재
추진

▲이스라엘 포괄적 세제개혁안 발표..“기술산업
계 혜택”
▲“화웨이 칩 쓰면 전기요금 반값”…中, 보조금
카드로 엔비디아 견제

▲중시진핑 “중러 공동이익 키워 세계 평화·발전
기여해야”
▲튀르키예 “가자지구 평화 책임 감수할 것” 국제
보안군에 파병 시사



새벽배송 제한 검토에
식품업계
구조붕괴 우려
L1

metro®

Life

‘K-신약’ 탄생
신속승인제도
본격화
L2



“기술력·경쟁력 확보… 플랫폼 기술로 새 패러다임 열 것”

속깊은 인터뷰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인벤티지랩이 새로운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IVL-BioFluidic’은 인벤티지랩이 축적해온 미세유체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항체 및 ADC(항체·약물접합체) 등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 전환에서 사용되던 히알루로니다제 등 추가 성분 없이도 고용량 제형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상업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포럼 직후, 김주희 대표를 만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김 대표는 고품질 입자 제형을 구현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모두 내재화한 국내 기업은 인벤티지랩이 유일하다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개발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인벤티지랩은 지난 10월 27~28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적 약물전달체 컨퍼런스 ‘PODD 2025’에 참석, ‘IVL-BioFluidic’을 글로벌 제약 업계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글로벌 비과마들과 협업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 IVL-BioFluidic은 어떤 기술인가.

“항암제나 면역치료제에서 쓰이는 항체 의약품을 SC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기존 항체 의약품은 정맥주사(IV) 형태로, 환자가 입원하거나 장시간 누워서 혈관으로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항체 의약품을 피하주사제로 구현하면 의료 현장에서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항체 의약품은 부피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일반 주사로 투여하기 어렵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농축을 해야 하는데 고농도로 농축할 경우, 농축하면 할수록 점성이 너무 높아져 주사기를 통과할 수 없다. 마치 ‘조청’을 주사기로 밀어넣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도 증가, 주입 한계 등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 IVL-BioFluidic이다.”

- SC 제형 개발에 핵심 과제는.

“IVL-BioFluidic의 강점은 ‘고농축’과



지난 10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드’ 공개
생산, 엔지니어링 기술 모두 내재화
신약개발부터 CDMO까지 역량 확보

항체의약품 피하주사 제형 전환 가능
최대 1875mg 농축, 저부피 기술 ‘강점’

미세 유체역학 기술 원천기술 보유
입자 모양과 크기 균일하게 제어해
약물 안정성, 장기 지속효과 높여
치료 편의성·효율성 높아 경쟁력↑



‘저부피’다. 즉 고농도 약물을 적은 주사 용량으로 빠르게 투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효 항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은 부피에 압축했는지를 연구한 성과다.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에서 기존 기술은 평균 800mg의 항체 약물을 담고 있다면, 인벤티지랩의 바이오플루이드스는 최대 1875mg 이상까지 농축 가능하다. 동시에 주사 용량은 2.5~4mL로 줄이고 주사 시간은 1~2분으로 단축한다. 피하주사도 10mL 이상 처방 시에는 한 번에 주사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과 차별화했고 소요 시간은 획기적으로 짧아졌다. 고농축·저부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API) 활성 성분 농도에 대해서도 큰 값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기술이 최대 약 500mg/mL 수준인데 비해, IVL-BioFluidic은 이미 500mg/mL 결과를 확인했고 현재 750mg/mL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어떻게 가능한건가.

“인벤티지랩은 미세 유체역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세 유체역학(마이크로플루이드스)은 머리카락 굵기만큼 아주 가는 관에서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가 어떻게 흐르고 분포하는지 물리적 거동과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를 응용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플랫폼 기술 ‘드럭플루이드’, mRNA 등 유전체 전달이 가능한 ‘진플루이드’ 등으로 기술을 확장해 왔다.

이미 드럭플루이드(IVL-DrugFluidic)와 진플루이드(IVL-GeneFluidic)으로 임상 단계도 진입했고 상업화 허가도 받은 기술이므로 기반 기술을 가지고 한 차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번에는 바이오의약품 파티클화에 적용한 것이 IVL-BioFluidic의 강점이다. 사과 모양을 갖춘 특이 파티클을 통해 입자 모양과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한다. 이 균일성이

초고농도 피하주사 제형의 약물 안정성과 장기 지속 효과를 높인다. 만약 항체 분자들이 뭉치거나 불균일해지면 체내에서 약효나 방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약동학적(PK) 측면에서도 검증을 거쳤다. 물성 변화 없이 약물의 물리적 특성이나 효능에 변화 없이, 기존 주사제와 동일한 수준의 약효를 유지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의미 있는 결과다.”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은.

“기존 플랫폼들은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약물중독 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초기 독성 평가나 임상 1상 단계까지 대부분 완료됐고, 이후는 파트너사와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비된 파이프라인만 해도 업계에서 손꼽힐 만큼 다양하다. 내부 자체 파이프라인은 35개, 외부에서 국내 및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진행하는 공동연구는 10건 수준이다. 상업화 단계로 진입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IVL-BioFluidic은 기존 피하주사 전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농축, 저부피를 실현하는 기술로서 차세대 항체 의약품 개발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및 기술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벤티지랩은 자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승인받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히 기술 로열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 매출도 발생시키는 구조를 갖췄다.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공정에 인벤티지랩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도 확대 중이다.”

- 시장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나.

“피하주사 제형은 현재 항암제와 면역항체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정맥주사(IV) 대신 간편하게 맞을 수 있어 치료 편의성이 높고, 의료진 입장에서 투약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어 시장성과 임상적 가치가 모두 큰 영역이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특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기반 펩타이드 의약품의 급성장이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GLP-1 계열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펩타이드 약물은 물리적 특성(점도, 안정성 등) 때문에 제형화 과정이 까다롭다. 앞으로는 GLP-1 단일제뿐 아니라 GLP-1·GIP 이중 및 삼중 작용 복합제 등 차세대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제형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농축·장기 지속형 피하주사 기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벤티지랩의 플랫폼 기술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완전체’ 류지현호, 캡틴은 LG 박해민…“우승 기운 전달하길 바란다”
▲‘KS 준우승’ 한화, 빅리그 관심받는 폰세·와이스와 재계약 가능할까
/사진 뉴스스

▲‘1골 1도움’ 대전 4연승 이끈 안톤, K리그1 35라운드 MVP
▲2025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 7일 개최

▲창덕궁 벽화·국보 530점 미디어아트로 인천공항 장식
▲유흥업소 출입 논란 김준영, ‘아마데우스’ 등 모든 작품서 하차